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46

4 讲义 98

5 퀴즈 137

6 보고서 141

7 자료 143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한국경제의 혁신과 미래>는 현재의 한국경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떻게 혁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는 대담형 강좌이다. 대담에 참여한 다섯 분은 2021년 연말에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주도로 출간한 책, 『혁신의 시작: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의 공동 저자들로 제도, 시장, 노동, 통상, 인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혁신의 방향을 진솔하게 제시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장기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떤 혁신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02 학습목표

(1) 단기간에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의 성과와 그 과정에서 축적된 문제점을 이해한다.
(2) 현 시점 한국경제의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를 높이고, 장기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들을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학습한다.
(3) 한국경제의 혁신에 대한 학습을 통해 앞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방향성과 전망에 대한 수강생 나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03 기대효과

이 강좌는 우선 현재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수강생들의 이해를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 제도, 시장, 노동, 통상, 인구 등 다양한 각도에서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이 현재 한국경제를 알기 쉽게 진단하고, 문제점과 함께 관련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 경제성장이 왜 필요하고, 성장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개선되거나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경제 문제가 단순히 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라는 인간 삶의 공간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04 주차별 구성

1주차	혁신의 시작
2주차	공정과 혁신의 선순환
3주차	노동시장의 신중한 혁신
4주차	인구문제의 해결 공간
5주차	가치 중심의 통상 정책
6주차	혁신의 시작, 나머지 이야기들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 주차 공정과 혁신의 선순환

2-1 공정과 한국 사회 ①

안녕하세요. 배석만입니다. 이 강좌는 한국경제혁신센터의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에서 기획하여'한국경제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준비한 대담형 특별 강좌입니다.

2021년 가을에 서울대 경제학부에 재직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현재의 한국경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떻게 혁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매일경제신문과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의견을 피력하셨고, 이것을 한국경제혁신센터 주도로 정리하여 연말에『혁신의 시작: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작업에 참여하신 교수님들 중 몇 분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는 물론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주병기 교수님을 모시고 '공정과 혁신의 선순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병기 교수님은 이 특별강좌의 토대가 되는 저서『혁신의 시작: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에서 동일한 제목의 제4장을 집필하셨습니다.

<사회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대담형 특별강좌의 키워드가 '혁신'인데, 관련하여 교수님께서는 공정에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병기>

안녕하세요. '혁신'을 키워드로 제가 공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공정한 사회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경험했던 경제발전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도가 낮고 계층 간 장벽이 높지 않은 나라들에서 경제개발이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가진 나라가 경제성장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공정은 그 자체로 혁신보다 더 중요한 목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혁신, 경제발전, 경제성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말할 때 자유와 기본권의 문제와 그리고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즈 등 많은 정치철학자들도 이 두 문제를 다뤘습니다. 전자는 분배 혹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후자는 결과적 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전자가 후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후자의 문제가 주된 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자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물론 분배적 정의 즉 결과적 분배의 공정성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공정의 문제가 모두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자>
경제발전에 필요한 공정은 시장의 공정과 분배의 공정 모두라는 말씀이시지요?

<주병기>
네. 그렇습니다. 공정한 시장과 공정한 분배, 이렇게 두 가지 의미의 공정에 대해 생각해볼 것입니다. 양자 모두 경제발전,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합니다.

우선 이른바 주류경제학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효율성의 기본조건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공정한 시장이란 소비자, 노동자, 기업, 자본가, 지주 등 어떤 경제주체도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시장을 말합니다.

우월적 지위는 특권, 차별, 정보의 불균형, 법, 제도 혹은 물리적 권한 혹은 권력의 불균형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우월적 지위가 야기하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아야 경제 주체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공정한 시장이라 합니다.

<사회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불공정으로 보입니다.

<주병기>
그렇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고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연한 사회는 당연히 불공정합니다. 돈이 법질서를 움직이면 당연히 돈 있는 자가 횡포를 부리는 불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언론과 미디어가 자본을 위해 정보를 왜곡하거나, 공권력을 가진 엘리트 관료들이 큰 기업, 금융과 부동산의 큰 손과 결탁하여 공권력을 사유화할 때도 불공정과 부패한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불공정한 시장의 대표적인 예로 독과점이 있습니다.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편익, 노동자 혹은 협력 하청업체의 성과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독과점의 횡포는 잠재적 경쟁자, 협력기업, 노동자의 혁신과 역량 개발을 가로막습니다. 진입장벽, 기술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의 방식으로 남의 기회와 성과를 빼앗고 힘없는 을의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는 공정한가요? 왜 불공정한 시장경제가 혁신을 방해하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병기>
대한민국에서 하청중소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배달 노동자, 임차인 등은 원청기업, 고용주, 프랜차이즈 본사, 배달 플랫폼 사업자, 임대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턱없이 높은 협상력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런 격차가 소위 갑질, 독과점의 횡포를 일으킵니다. 이런 시장에서 혁신을 추구할 동기, 열심히 교육받고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할 의지,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길까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여 평평한 운동장에서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공정한 시장이 혁신의 동기, 교육과 역량 개발의 의지를 살립니다. 이렇게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면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전무죄', 권력의 사유화와 전관예우 같이 공권력을 사고 파는 관행, 재벌가에 의한 부당한 경영권 장악, 사익편취, 주가조작 등 공정한 시장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 편법, 부패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런 중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주가조작, 뇌물수수, 분식회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 권력이 있다고 재벌이라고 봐주는 걸 당연시하고 있는 이런 사회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들이 더 높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창구가 막혀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언론과 미디어도 노동보다 자본에 우호적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약자들이 갑질, 독과점의 횡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좋은 교육을 받고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더 확대해야만 협상력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분배도 공정해질 것 같은데요. 이제는 공정한 분배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공정한 분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병기>

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지면 분배의 공정성이 개선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낮은 임금을 받는 취약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강화되면 이들이 임금을 높일 수 있고 다른 부문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주체들의 경쟁과 협력이 결과하는 분배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로버트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ism)들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소유권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가 결과하는 분배는 항상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불평등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주체들의 출발선의 격차, 시장에서 결정되는 상품가격과 임금의 격차가 선한가에 대한 가치판단이 필요합니다. 시장가격을 윤리적 가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불평등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본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토마스 피케티의 주장입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사실로 나타납니다.

자본수익률이 큰 변화가 없을 때 이런 변화는 결국 전체소득에서 자본소득의 비중을 높이고 노동소득의 비중을 낮추게 됩니다.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란 책이 이런 자본주의와 불평등의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불평등은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킵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선진국에서 이런 사회적 합의가 정부의 개입에 의한 소득재분배와 복지제도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와 국가제도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공정과 분배적 정의의 원칙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정한 성과 배분입니다. 협력의 성과를 기여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시장의 불공정을 규율하고 정부에 의한 시장소득의 재분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혹한 불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최소한의 삶의 질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지와 사회안전망 그리고 교육과 의료와 같은 기초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자>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관계에 대한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과도한 복지에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병기>
물론 무차별적으로 복지재정을 늘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적정 수준의 복지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수준이 얼마냐는 지금까지의 선진국 발전의 역사를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의 40%에서 50%에 이르는 규모의 예산을 정부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지출이 사회복지지출입니다. 이 나라들을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기능과 사회복지제도가 오히려 혁신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개개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줄 때 모든 구성원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의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할 때 혁신이 촉진되고 경제발전의 동력도 강화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사람의 힘만으로 경제개발에 성공했고, 선진국 수준의 발전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 인적자본의 축적이 지속되려면 복지제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빠른 경제성장과정에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미래의 경제발전을 주도할 고도의 인적자본 축적이 가능합니다. 분배적 정의의 실현은 그 자체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혁신, 발전과 경제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사회자>
그러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병기>
불평등이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능력과 노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런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능력을 키우고 노력을 한다면 극복할 수 있으니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충분히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불평등이 있습니다. 바로 인종이나 성차별 혹은 출신 지역이나 가구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제한되어 발생하는 불평등입니다. 이것을 기회 불평등이라 합니다. 이런 불평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기회불평등한 사회에서 다수의 약자들은 자신의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특권층에서만 일어나는 혁신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교육, 의료,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높은 계층 간 장벽을 낮추고 약자들의 기회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수의 역량이 경쟁하고 협력할 때 보다 혁신적인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말한 불공정한 시장질서도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재벌, 독과점 등 강자들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이익을 독점하게 되면 대다수의 약자들이 나눠 가질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강자들의 횡포를 근절해야 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도 커집니다. 따라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자>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공정성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병기>

대한민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을 거듭했지만, 실질적 민주주의, 정부와 공공부문, 제도 그리고 사회의 성숙은 경제성장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과 행정의 말단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부패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력형 비리와 중대 부패입니다. 아직도 개발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불투명한 관행과 부조리가 기업과 사회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세습 경영과 친인척의 먹이사슬이 뒤얽힌 재벌 대기업 집단이 아직도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각 부문에서 권력 집단의 엘리트들이 민간 부문의 이권과 밀착된 권력형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 라임과 옵티머스 같은 금융사기 사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대통령과 대기업이 연루된 횡령과 뇌물수수 사건, 건설업자와 검찰-사법-지방정부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부산의 엘시티 사건 같은 부동산개발 비리, 이런 권력과 민간 부문의 유착으로 벌어지는 부패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드러난 범죄만도 이런데 드러나지 않은 범죄와 법망을 피해 일어나는 부패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 검찰권 남용, 재벌과 권력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에 대해 관대한 사법 관행 등 권력 기구, 관료, 언론이 거대한 구조적 담합을 형성하여 지대추구에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부패 인식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발간된 OECD 자료에서 한국 국민 중 30%만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평균 43%와 큰 격차가 있고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한국 국민 다섯 중 네 명에 가까운 79%가 부패가 만연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인 43%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부패 수준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2017년 부패 인식도는 100점 만점에 54점입니다. 전체 180개 조사국 중 51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중국, 남미 국가들과 비견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3년간 부패 인식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0년 평가에서 39위로 올라섰습니다.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하위권입니다.

이처럼 낮은 사회적 신뢰와 높은 부패의 배경에는 공공부문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력형 부패와 재벌 중심의 불공정한 시장 질서가 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피감기관 혹은 관련 민간 부문에 재취업하고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서는 전관예우를 통해 권력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런 권력형 부패로 공공부문의 감시·감독 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공정거래, 금융감독, 산업 안전, 노동 감독 등 각 부문에서 허술한 감시체계의 문제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사회에서 소수의 강자가 국가 공동체의 성과를 독점하고 있으니 다수의 국민들이 나눌 수 있는 몫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들 삶의 질을 개선할 정부의 여력도, 시장에서 약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협상력도 낮은 수준입니다.

결국 힘없는 다수 국민들이 불평등의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층 간 장벽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회 불평등한 사회에서 부패와 불평등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불평등 함정이 만들어지고 경제발전은 지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근로 환경, 건강 그리고 삶의 질 격차는 더 심합니다.

최상위와 최하위 임금격차, 저임금 근로자 비율 같은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는 지난 10여 년간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와 평균 노동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계층 사다리로 여겨지던 교육도 이제는 계층 유지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한국 사회의 불공정이 경제 수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병기>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불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 PPP라고 합니다.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미국 대비 70%대 수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수준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비슷합니다. 최근 일본은 미국의 70% 미만으로 하락하여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선진국 경제로 부상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지속하려면 선진국다운 발전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대기업에 특권을 몰아주고 노동을 희생하여 고속성장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그동안 뿌리내린 부패와 불공정을 청산하지 않고서 한국보다 앞선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희생하고 경제 성장하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높은 수준의 기술, 전문적 역량과 창의성이 필요한 발전단계입니다.

국민 개개인, 조직과 기관, 사회의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강자가 기회와 이익을 독점하는 불공정 속에서 그리고 국민 다수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개개인은 교육과 역량 개발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실 안주와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도전적 사업가도 창의적 혁신가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

모방·추격형 경제로 버티는 것이 한계에 다다른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과 분배의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한국 사회는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해주신 불공정시장과 구조적 담합,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 공정과 한국 사회 ②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장과 분배의 공정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야 하고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는 지적에 이어서 현재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탈적 자본주의(predatory capitalism)라고까지 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소득 격차, 성차별, 능력주의로 나타나는 사회 불평등, 사회 양극화 등에 대해 폭넓게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이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재 한국 사회의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우선 가장 중요한 불공정으로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병기>
약탈적 자본주의(predatory capitalism)의 나쁜 속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간 거래와 노동시장에 만연한 승자독식과 갑을관계, 자본과 공권력의 담합으로 부패한 시장질서, 정실관계가 지배하는 기업 경영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불공정과 부패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대다수 경제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희생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현재 한국 사회경제를 '약탈적 자본주의'로까지 표현하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과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병기>

돈과 권력, 힘 있는 자가 땀 흘리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고, 힘없는 다수가 희생되는 양상을 빗대어 약탈적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사익 추구라는 기본 법칙으로 작동하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언제나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여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동기가 작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블렌(Thorstein Veblen),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등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약탈적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더하여 약탈적 탐욕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경제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자본주의의 긴 역사 속에서 노동착취, 독과점의 지대추구, 돈과 권력의 유착과 담합, 이런 약탈적 자본주의의 폐습은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었고 지금도 이런 개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윤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약탈적 탐욕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도입되었습니다.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의 노동자 권리의 신장, 반독점과 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의 확대 등은 이런 개혁으로 얻어진 선진적 자본주의의 기본질서입니다.

이처럼 법과 사회제도가 성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미와 서유럽 선진국들의 현재와 같은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선진국들이 이루었던 자본주의의 선진화를 한국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사회자>
한국경제에서 약탈적 자본주의의 속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딥변>
약탈적 자본주의가 보이는 일반적인 특성은 부와 소득의 양극화와 높은 비중의 취약 노동 계층, 부와 사회적 지위의 세습과 불투명한 공공부문과 부패한 공권력입니다.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나쁜 관행이 지배하는 기업 간 거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높은 임금 및 수익률 격차, 높은 저임금 노동 비중과 산업재해율, 이런 약탈적 자본주의의 속성이 한국 자본주의를 특징 지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재벌 일가와 대기업의 오너(owner)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탈법, 편법 행위를 일삼아도 공권력의 감시와 감독 그리고 처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등 공공부문에서 공권력이 경제력과 자본에 기생하는 탐욕스러운 엘리트 능력주의가 관행처럼 한국 사회에 뿌리내렸습니다. 전현직 관료가 민간 부문에 재취업하여 공권력을 사고파는 일을 통해 수십억의 돈을 챙기는 것을 당연하고 떳떳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전무죄가 만연한 나쁜 법질서가 지배하고 법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권력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 이런 부패한 공직사회의 풍토, 공권력이 동원되는 각종 금융사기, 부동산개발 비리 사건, 재벌가의 사익편취, 주가조작 등은 한국 사회가 아직도 약탈적 자본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약탈적 탐욕을 충족시키는 어마어마한 돈과 자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장시간 노동, 높은 직무스트레스, 산업재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대다수의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노동자, 일하는 사람의 피, 땀, 눈물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자>

'약탈적 자본주의'로 인한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공정한 사회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한국 사회는 공정한가요?

<주병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정과 분배정의와 관련된 사회의 기본구조는 크게 세 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기회 평등의 원칙입니다. 성, 인종, 종교, 출신 등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교육과 건강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협력의 성과를 기여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공정한 성과 배분의 원칙입니다. 시장경제에서 성과 배분은 기업과 소속된 조직에서 1차로 이루어집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공정한지 우선 먼저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시장의 불공정을 규율하거나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가혹한 불운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삶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건강, 고용, 연금, 산재보험 등이 이런 원칙에 기반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공정과 분배정의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총의를 법과 제도로 구현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시장의 소득 격차는 너무 높습니다. 이를 교정해야 할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선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도 허술하여 일하다 다치거나 직장을 잃거나 재난과 사고 등 가혹한 불운에 처한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층 이동도 갈수록 어려워 계층 간 경제적 기회 불평등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성별 간 경제적 기회불평등도는 더 심각합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에서 겪는 '실질적'차별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사회의 공정에 대한 세 가지 기본 원칙 중 어느 하나에도 한국 사회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말입니다. 양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몸은 선진국인데 마음은 후진국입니다. 마음이 선진국이 되어야 발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지금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큰 문제인가요?

<주병기>
우선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판단하려면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기준이 세계 평균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국보다 못한 후진국,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허한 얘기입니다.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선진국입니다. 특히 한국보다 잘 사는 선진국. 발전하려면 당연히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경제성장만큼이나 빠르게 소득분배가 악화됐습니다. World Income Database의 자료를 이용하여 최상위 10% 고소득 계층의 세전 개인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에는 34%였습니다. 2019년에 46%로 증가했습니다. 불평등도의 변화가 주요 선진국들 중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불평등도를 기준으로 1990년대 중반에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여섯 번째로 높은 0.355의 지니계수 값을 기록했습니다. 매우 불평등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런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를 가처분 가구소득의 지니계수와 백분위율(P90/P10), 두 가지 지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의 화살표의 길이는 소득불평등의 변화 속도를 나타냅니다.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도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중위소득과 최하위 10% 소득 간 비율의 경우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집니다. 빈곤율은 소득 수준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빈곤율은 17.4%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43.8%로 가장 높습니다. 임금 격차 역시 과거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나빴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임금 즉, 중위 임금 2/3 미만의 노동자 비율과 상위 임금(P90)과 하위 임금(P10)의 비율을 나타내는 백분율을 이용하면 둘 다 OECD 회원국 최상위권입니다.

이처럼 소득분배가 빠르게 악화된 것은 경제성장과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는 높아졌지만, 시장질서의 선진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복지확충 등에서 큰 변화가 없거나 진전이 더디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시장소득불평등도와 가처분소득불평등도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는데 보시는 그림의 수직축이 이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 한국의 위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화살표는 국가별로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의한 가구소득 불평등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시장소득 불평등도와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북유럽 선진국들의 긴 화살표는 불평등도를 낮추는 데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한국의 짧은 화살표는 정반대로 정부의 역할이 작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자>
여성에 대한 차별은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성별 간 기회불평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병기>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 차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 이런 차별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에서는 아직도 문제해결이 요원합니다. 이제는 당연히 차별을 공공연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차별은 줄었을 수 있습니다. 채용, 승진에 있어서 실질적 차별은 여전합니다.

많은 지표들이 이런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공공부문에서도 고위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습니다. 민간 부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19년 한국경제포럼에 출간된 제 논문을 보면, 능력이 있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공하지 못할 확률인 성별 간 개천용 기회불평등지수 값을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노동소득과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측정한 결과는 각각 66%와 50%로 측정됩니다. 여성은 능력이 탁월해도 절반 이상은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최근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층 간 기회불평등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통해 상당 부분 극복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별 간 기회불평등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하더라도 성별 간 기회불평등은 별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높은 값입니다. 고등교육이 성별 간 기회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취업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 출산과 혼인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문제 등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이런 차별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한 성별 간 기회불평등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성이 겪는 실질적 차별이 너무나 극명하다고 OECD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형식적 차별이 없으니 문제없다고 보는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능력주의를 둘러싼 남성과 여성의 사회갈등 양상에서 이런 태도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사회자>
능력대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얻는 게 공정하다는 능력주의에 공감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주병기>
능력주의는 능력을 심사하는 절차를 정하고 공평한 심사과정을 거쳐, 능력에 따라 취업 여부, 승진 여부, 보상의 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보면 매우 단순명료하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기준이 앞서 말한 공정한 사회의 세 가지 기본원칙의 어느 하나에도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능력의 차이에 따라 얼마나 보상하고 얼마나 큰 격차를 둘 것인가? 애초에 능력을 획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쟁의 낙오자, 실패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나하나가 능력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분배정의의 기본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를 불공정한 한국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대안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치, 사회 지도자들, 언론과 학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아 개탄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가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절차적 공정성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실질적 공정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불완전한 능력주의가 불공정의 온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만큼 능력주의로 작동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은 생산성에 따라 능력을 인정받고, 그렇게 결정되는 소득과 수익이란 보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취업과 승진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가 초래한 불공정의 사회적 비용을 직접 혹은 역사 속에서 무수히 경험해왔습니다. 능력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시장에서 능력주의는 약육강식의 정글을 용인하는 위험한 사회를 만듭니다.

공정한 분배에 대한 원칙도 없고 강자만이 안전한 삶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는 다수에게 위험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경제학자, 정치철학자, 사상가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며 정의론, 도덕철학, 경제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후진적 자본주의 사회의 이런 단순한 능력주의 때문에,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차별과 기회불평등이 난무한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유럽과 북미의 자본주의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진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의 지속은 차별받는 집단과 기득권 집단 사이를 더 갈라놓습니다. 계층화된 사회에서 능력은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소속된 집단의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차별받는 집단에서는 능력을 키울 기회가 제한되고, 능력주의 사회에서 그 차별에서 벗어날 자유도 박탈당합니다. 능력주의는 이런 구조화된 차별과 기회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시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실시해온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는 능력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소수집단, 이민자,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해 우대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대한 첫 번째 기본 원칙, 기회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식적 기회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기회 평등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부문 간, 기업 규모 간, 고용형태 간 소득과 삶의 질 격차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이 또한 한국 사회가 능력주의라는 안이한 자세로 노동시장을 규율하여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 해법으로 2018년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강수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들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해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세밀한 추진 방안을 준비하지 못한 점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은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습니다. 능력주의가 만든 불공정한 사회가 능력주의로 풀릴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풀기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격차, 노동 환경 격차, 사회안전망 격차 등이 해소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구현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기회 평등과 분배정의가 실현되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대다수가 과감한 혁신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방법이며 기술 선도국이 되는 길입니다.

<사회>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기회 평등과 분배정의가 실현되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현재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정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능력주의의 절차적 공정만으로 실질적 공정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의 온상이기도 하다는 말씀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공정한 한국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공정한 사회 만들기① :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 강화

지난 시간에는 현재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실태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업생태계의 불공정, 성차별, 소득격차 능력주의로 인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어떤 상황인지, 이것이 왜 혁신을 가로막는지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했던 대로 혁신을 위한 한국 사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떤 구체적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정과 관련하여 교수님이 우선 제안하시는 것이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 강화입니다. 교육을 강조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주병기>
과거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우수한 인적자본이 지속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계층 간 장벽이 높지 않았고 공교육이 빠르게 확산되어 국민 개개인이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빠른 경제성장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도왔습니다. 기술과 역량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로 필리핀이나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실패했습니다.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지속되지 못했고 소위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한국경제가 인적자본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교육이 계층 사다리로써 잘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인적자본 축적이 빠른 경제성장을 도왔고, 빠른 경제성장으로 창출된 좋은 일자리 기회가 다시 교육과 인적자본 축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시장에서는 노동착취가 만연하였고 정부는 복지를 희생하며 성장만 강조했지만, 교육과 인적자본 축적이 지속됐고 그래서 성장도 지속됐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육과 인적자본의 축적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단계가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과 같은 기술전환이 인적 역량의 중요성을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과거에는 교육이 계층 사다리 기능을 잘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가요?

<주병기>
과거 계층 사다리로 여겨졌던 교육은 이제는 계층 유지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이용하여 최상위 5개 대학과 전국 대학 의약학 전공 분야를 포함한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환경이 열악한 학생은 아무리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노력해도 10명 중 7명은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얻어집니다.

많은 연구들이 교육적 성취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김영철)에 따르면 학생의 출신배경이 직·간접적으로 성적에 50%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한 개천용기회불평등도를 이용하면 가구의 사회경제적지위가 열악한 학생이 최상위 수능성적을 획득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2005년과 201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를 이용하면 외국어 즉, 영어영역에서 70%, 언어 즉, 국어영역에서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교육기회불평등도가 높은 것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시간의 절대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들일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자기주도학습 시간도 더 길기 때문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가장 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기회 불평등도가 현저하게 하락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대학에 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은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대학에 가기가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2020년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보면 소위 SKY라 불리는 3대 명문대의 신입생 중 소득 상위 20% 가구에 속하는 학생이 55%라고 합니다.

<사회자>

SKY에 들어가는 신입생의 절반이 소득 상위 20% 가구에 속한다는 것은 매우 놀랍게 느껴집니다.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 소득 수준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기회불평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병기>

맞습니다. 계층 간 교육기회불평등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높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런 교육의 기회불평등이 경제적 기회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경제적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10%만 비관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로 이 비율은 50%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실제 소득자료를 이용해도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층 간 경제적 기회불평등은 계층 이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개천용기회불평등 지표도 그 하나입니다.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와 가계동향조사자료(HIES)를 이용하여 2021년 제 대학원 학생과 경제적 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를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출신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기회 불평등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199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붉은색 실선은 1990년 이후 항상가구 소득의 개천용기회불평등지수 값의 추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개천용지수란 충분한 능력과 노력이 있더라도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이 개천용기회불평등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4년 평균 17.96%이었습니다. 2013년에서 2016년까지의 4년 평균 39.52%로 약 2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고졸 혹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여 기회 불평등도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의 두 점선입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경우, 그림의 위쪽 회색 점선입니다만, 기회 불평등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경우, 아래쪽 노란색 점선입니다만, 기회 불평등도가 크게는 50% 이상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을 통하여 기회 불평등을 상당 수준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교육격차 해소가 경제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결국 사회계층 간 대학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공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일찍부터 포기하게 됩니다. 있는 집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고등교육은 다수의 없는 집 인재들의 잠재력을 놓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가는 부잣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한국을 이끌 혁신적 리더들을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발굴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 모두의 손해로 돌아옵니다. 대학을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속에서 세계는 에너지와 디지털 기술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큰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을 회복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회계층과 다양한 지역 출신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문대들이 이런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잠재력이 있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대학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대학과 사회, 경제가 같이 발전하는 길입니다.

<사회자>
교수님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결국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제도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병기>
현행 수시전형과 같이 고등학교를 차등화해서 평가하거나 수능 점수로 줄 세우는 방식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입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수시, 정시 등과 같이 선발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선발 결과를 평가하여 교육기회불평등을 줄이고 계층사다리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더 좋은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교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위 소득계층에 편중되는 결과는 막아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의약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생의 계층별 및 지역별 다양성을 평가하고 입학생의 다양성이 높은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거나 대학의 재정지원 혹은 연구지원의 자격 요건으로 계층 다양성과 지역 다양성 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길 수 있습니다. 기회균형선발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혹은 학생의 성적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입시전형을 개발하는 등 입학생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특단의 조치 없이 정시·수시 비율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대학입시에서 발생하는 계층 간 교육기회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수능과 내신 성적만이 아니라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선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들도 변화하도록 고등교육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회>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혁신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교육 사다리 외에 취업과 창업의 계층 사다리 만들기에 대하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공정한 사회 만들기② : 취업, 창업의 계층 사다리 만들기

지난 시간에는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단기간에 계층 사다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 다양한 사회계층과 다양한 지역 출신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두 번째 이야기로 취업, 창업의 계층 사다리에 대한 주병기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 회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취업, 창업의 계층 사다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합니다.

<주병기>

대학입학뿐만 아니라 취업과 창업 그리고 기업활동을 통한 성공 사다리도 충분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명문대에 들어가지 않아도, 평범한 알바생도 성공해서 유명인사가 되는 시대입니다. 기업도 전통적인 학력이나 학벌로 유능한 인재를 뽑는, 판에 박힌 채용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졸 인재 채용을 늘리고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것도 취업에서 발생하는 계층 및 지역 간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업의 성공 사다리를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인간다운 생활은 물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휴일도 없이 주당 50시간, 60시간을 일하고 최저 생계 수준에 가까운 임금을 받습니다.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라는 선진국이 됐다지만 아직도 국민 삶의 질은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남성-여성 간의 근로소득 격차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너무 큽니다.

한국경제에도 이제 성공적인 IT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출 주력 산업에서는 여전히 성공적인 기업 성장의 사례는 드뭅니다. 아직도 기업생태계가 극소수의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소수의 중견, 중소기업 그리고 대다수의 소기업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창업과 중소기업 단계를 거쳐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창업과 중소기업 단계를 거쳐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이 막혀있다는 말씀은 기업성장의 성공 사다리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병기>

기업성장의 성공 사다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은 재벌과 대기업 집단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아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성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재벌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수익을 총수 일가가 빼돌리는 나쁜 경영 행태, 정실주의 관행, 공권력이 부패 이런 것들이 건실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돈과 권력의 인맥이 생산성과 혁신보다 더 중시되는 경제에서 혁신가의 창업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이렇게 중소기업의 성장이 가로막힌 경제의 최대 피해자는 다수의 국민, 힘없는 서민, 노동자들입니다. 고용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일자리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정한 시장경제의 강자들이 경제적 지대를 독점하면 다수 약자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자>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교수님께 최근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ESG 경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병기>

최근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딴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돼 왔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윤리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위험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평판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글로벌 거버넌스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은 장기적 위험관리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투자유치, 수익 창출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로까지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공급망에서 유발되는 간접적인 탄소 배출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도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전환으로 촉발된 ESG를 강조하는 자본주의는 기업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2050년까지 공급망에서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한다는 'RE100'선언을 앞다퉈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글로벌 대기업들도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 조류인 ESG 경영이 한국 자본주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주병기>
지금은 세계사적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은 글로벌경제와 무역질서에 있어서의 거대한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에 큰 도전이지만 잘 극복하면 동시에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ESG를 강조하는 트랜드는 한국 자본주의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자본주의는 ESG 성과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의 불공정 시장질서를 ESG 성과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무시되어 온 중요한 과제들,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고용복지와 역량 강화 그리고 혁신적 성과와 합리적 지배구조의 확산 이런 많은 성과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대기업에 특권과 투자를 집중해서 발전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개별 기업의 역량만이 아니라 공급망과 기업 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의 혁신 역량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기업의 ESG 성과에 대한 관심이 소비자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국민 의식이 있어야 불공정한 거래와 부당한 사익 편취와 같은 약탈적 행위를 엄중히 보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이제 양적 지표로 볼 때 선진국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감독 기구, 권력기관, 관료사회는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몸에 맞지 않은 옷은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이 중대한 기업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관행은 근절돼야 합니다. 경제규모와 발전 단계에 걸맞은 엄격한 감독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력기구와 관료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미국경제는 지난 100년 동안 꾸준히 2% 수준의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혁신적 창업, 새로운 선도기업의 진입과 성장이 이어지는 역동적인 기업생태계가 이런 지속성장의 주춧돌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반독점과 공정거래에 대한 공적 감시와 사법적 처벌이 엄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강자들이 진입장벽을 만들고 혁신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엄격히 감독해야 창업, 신규 사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경제적 약자들이 역량개발, 취업, 창업과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성공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업과 창업의 계층 사다리 만들기, 그리고 기후 위기와 에너지전환으로 촉발된 ESG 경영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측면의 한국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 강좌를 총정리하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병기>

한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교육열과 고도의 인적자본 축적에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졌고 교육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높은 불평등과 양극화, 계층 간 기회불평등으로 이런 성장동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단계에 진입한 한국경제는 이제 질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자본주의의 발전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전환 그리고 에너지전환 등 세계사적 전환에 성공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혁신적 선도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적자원입니다. 한국경제의 불공정,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여 국민 전반적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과 인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자>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과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병기>
우선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 적어도 중위권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불공정한 시장 질서로 인한 소득 격차와 양극화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민 삶의 질은 사회복지와 안전망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현재의 낮은 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복지 시스템도 개선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부당한 지대추구 행위를 엄격히 감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이들이 고용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임금 격차와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을 관리하는 금융, 공정거래, 노동 등 감시체계와 감독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혁을 지속해야 합니다.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시기구의 권한, 인력, 전문성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료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한 관행은 하루 빨리 청산돼야 합니다.

포용적 교육투자와 고도의 혁신적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한국경제가 지속발전하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교육, 의료, 복지 등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재 공급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영유아 보육과 초기 아동기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기회 형평성 개선, 저출산 문제 해결,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인적자본 등 주요 정책 목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조기 개입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면 이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을 확충해야 하며 서비스 지원의 질 역시 높여야 합니다.

중등교육과 대학입시제도 역시 계층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기회형평성과 청소년 삶의 질의 관점에서 상당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 소모적인 고등학교 입시경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에서도 기회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은 학부 교육과 한국경제의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중심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상위권 대학들이 부유층 자녀들을 집중적으로 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우수 인재는 가난한 계층에도 있지만 이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의 학부 입학생의 계층별, 지역별 다양성이 훨씬 더 확대되도록 이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부문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거점대학을 육성하는 것도 고등교육의 기회 형평성 개선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역거점대학이 기술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 역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포용적 국가 발전이 혁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 강좌의 결론입니다.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정부의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필요합니다. 포용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한국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양적, 질적 공급 확대로 이어집니다. 공정한 시장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선진적인 기업생태계가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사회>
포용적 국가로 발전시키고, 그런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공정을 담보하고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귀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병기>
네. 고맙습니다.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2

A virtuous cycle of fairness and innovation

2-1 Fairness and Korean society (1)

Hello. My name is Suk-man Bae. This lecture is a special talk prepared under the theme of "Innovation and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organized by the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nd Innovation.

In the fall of 2021, eight professors at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poke frankly about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economy from various angles and how to innovate for sustainable growth in the form of a relay interview with Maeil Business Newspaper. This was organized by the Korea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nd Innovation and published at the end of the year as a book titled: The Beginnings of Innovation: How to Revive the Growth Potential of the Korean Economy. I will invite some of the professors who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to discuss related matters and to hear additional comments they might want to share.

In this lecture, Professor Biung-ghi Ju will speak about "the virtuous cycle of fairness and innovation." Professor Biung-ghi Ju wrote the fourth chapter, which has the same title as this section, of The Beginnings of Innovation: How to Revive the Growth Potential of the Korean Economy, which is the foundation for this special lecture.

<Host>

Hello, professor. First of all, the keyword of this special talk is “innovation,” and it seems like you focus on the fairness aspect. Could you start the conversation by telling us why?

<Biung-ghi Ju>

Hello. I focus on fairness regarding “innovation” because a fair society is an important driving force for economic development.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lesson that can be learned from the hist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at many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experienced so far.

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more successful in countries where inequality is low, and barriers between classes are not high. A country with a fair society was able to sustain economic growth longer. Of course, I think fairness itself is a more important goal than innovation. But I think fairness is essential to achieve innov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When we talk about fairness and justice in modern society, we talk about freedom and fundamental rights versus the issue of distributive justice. Many political philosophers, including John Stuart Mill and John Rawls, have also addressed these issues. The former is closely related to distributing or deriving a result. The latter concerns the resulting justice. The former is a more fundamental problem than the latter. However, the latter issue is the primary concern in a country based on a mature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In Korea, which has a short history of democracy, I still think that the former is a big problem. This lecture will deal with this issue from a fair market order perspective. Of course, distributive justice, that is, the fairness of the resulting distribution, is also a significant issue. Both of these problems of fairness are closely related to economic development.

<Host>
Are you saying that the fairness necessary for economic development is both the fairness of the market and the fairness of distribution?

<Biung-ghi Ju>
Yes. That's right. We will think about two meanings of fairness: a fair market and a fair distribution. Both are important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First, so-called mainstream economics teaches that a fair market order is a basic condition for efficiency. A fair market here refers to a market where no economic agent, such as consumers, workers, companies, capitalists, landlords, etc., can have a "superior position."

Superiority arises from privilege, discrimination, information disparities, laws, institutions, or disparities in physical authority or power. Economic agents can transact on an equal footing only when the imbalance of power caused by such a superior position does not exist. Such a market is a fair market.

<Host>
What kind of examples can we talk about? The saying, “There's one law for the rich, and another for the poor,” seems unfair.

<Biung-ghi Ju>
That’s right. A society where equality before the law is not respected and where the saying “one law for the rich, and another for the poor” is prevalent is unfair. When money moves law and order, an unfair market is created in which those with money are tyrannical.

Unfair and corrupt markets are also created when the press and media distort information for capital or when elite bureaucrats with governmental authority collude with large corporations and big players in finance and real estate to privatize governmental authority. A classic example of what economists call an unfair market is a monopoly.

Monopolies can take away the benefits of consumers and the performance of workers or subcontractors. This monopoly and tyranny hinder innovation and competency development of potential competitors, partners, and workers. This is because barriers to entry, technology extortion, and unit price slashing rob others of opportunities and achievements and block opportunities for powerless individuals.

<Host>
Is Korea's market economy fair? Please explain in more detail why an unfair market economy hinders innovation.

<Biung-ghi Ju>
In Korea, subcontractor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orkers, franchisees, delivery workers, tenants, etc., cannot transact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prime companies, employers, franchise headquarters, delivery platform operators, or lessors. There is a considerable gap in bargaining power.

This gap causes the so-called tyranny of power and monopoly. Would you be motivated to innovate in this market, have the willingness to be educated and strive to develop your skills, and work hard?

We need to increase the bargaining power of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so that they can cooperate and compete on a level playing field. This fair market fuels the motivation for innovation and the will to train and develop competency. B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in this way, the economy can develop and grow.

We must eradicate illegal and unjust practices, including the “one law for the rich, and another for the poor” mindset, the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public power, such as the privatization of power and privileges for one's former post, unfair control of management by the chaebol family, special interests, and stock price manipulation that undermine the foundation of a fair market order.

Severe legal penalties should be imposed for these serious white-collar crimes. Such a society, which excuses chaebols though they have power over stock manipulation, bribery, accounting fraud, and exploitation of special interests, must end. This is a serious problem.

In addition, we must enable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to have greater bargaining power. Most workers are blocked from practical channels to exercise their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Only a few politicians represent workers' interests, and the press and media are more favorable to capital than labor.

The imbalance of bargaining power can be resolved only when the economically weak can protect themselves from the tyranny of power and monopoly, and the right to receive a good education and develop competence is further expanded.

<Host>
I see. Then, as you said, if a fair market is created, the distribution will also be fair. Now I would like to hear from you on the issue of fair distribution. First of all, what is your opinion on fair distribution?

<Biung-ghi Ju>
It is clear that the creation of a fair market improves the fairness of distribution. Enhancing the bargaining power of vulnerable, low-wage workers will enable them to raise wages and close the gap with other sectors.

However,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the distribution resulting from th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of economic agents in the market is fair. Libertarians like Robert Nozick argued so. They believe that distribution resulting from transactions according to just ownership and free will is always fair. That is the case, no matter how unequal the results are.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is extreme libertarianism. It is necessary to judge the value of the gap between the starting lines of economic agents and the gap between the price of goods and wages determined in the market. This is because market prices cannot be equated with ethical values.

It is a common phenomenon that inequality increases with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Thomas Piketty argues that this is because capital as a share of total income increases. If you look at the actual data, it turns out to be true.

When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rate of return on capital, this will eventually increase the share of capital income in total income and decrease the share of labor income. Thomas Piketty's book Capital in the 21st Century explains the changes in capitalism and inequality well.

The inequality of capitalism causes many social problems. Most people would agree that market inequality needs to be managed at a reasonable level. In fact, in all developed countries, this social consensus has led to income redistribution and the expansion of welfare systems through government intervention.

The principles of fairness and distributive justice that the politics and national systems of modern democratic societies have in common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broad categories.

The first is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The idea is to ensure everyone has an equal chance to succeed if they work hard. The second is fair distribution of performance.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regulate market unfairness and redistribute market income so that cooperation outcomes can be fairly distributed according to contributions.

The third is the principle that everyone should be protected from severe misfortune. The goal is to ensure everyone has the right to a minimum quality of life. What is needed for these principles to be observed is a system that supports welfare, social safety nets, and basic goods such as education and medical care.

<Host>
There is some objec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 distribution and innovation. Instead, some think that wasting resources on excessive welfare hinders innovation.

<Biung-ghi Ju>
I am not talking about indiscriminately increasing the welfare budget. I am talking about an appropriate level of a welfare system that promotes innovation. That level can be estimated by looking at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advanced countries so far.

In developed countrie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governments manage budgets ranging from 40% to 50% of their gross domestic product. The largest share of government spending is social welfare spending. Looking at these countries, we can see that the government's active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and social welfare system create a favorable social environment for innovation.

When welfare and social safety nets protect individual lives, opportunities and motivation for all members arise. When all members of society participate in this way, innovation is promoted, and the engine of economic development is strengthened.

Korea has succeeded in economic growth only with human capital and reached the stage of development at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The role of the welfare system is vital for education and human capital accumulation to continue.

In the process of rapid economic growth, we must resolve deepened inequality and polarization and strengthen welfare and social safety nets to accumulate a high level of human capital that will lead the future economic development. The realiz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is an essential goal in itself, but it is also vital to achieving the goals of innovation,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Host>
What is the root cause of inequality and polarization?

<Biung-ghi Ju>
There are many reasons for inequality to occur. First, the difference in ability and effort. This inequality is inevitable. However, anyone can overcome it if they develop their skills and make an effort, so it is acceptable if the degree is not severe.

However, some inequalities cannot be overcome no matter how hard we work. Inequality results from racial or gender discrimination or limited opportunities for people from disadvantaged areas or households. This is called inequality of opportunity. This inequality must be eradicated.

In a society with unequal opportunities, most underprivileged have no choice but to give up their efforts to develop their capabilities. Innovation that occurs only among the privileged few is difficult to sustain. Education, health care, welfare, and social safety nets are essential in lowering barriers between the higher classes and expanding opportunities for the underprivileged. A more innovative society is created when many capable individuals compete and collaborate.

The unfair market order is also an important reason for deepening inequality and polarization. When strong players such as chaebols and monopolies monopolize the total profits generated in the market, the profits that the majority of the weak can share will inevitably decrease.

Only when the tyranny of the economically strong is eradicated will the share that can be returned to the weak also increase. Therefore, welfare and social safety nets must be strengthened to resolve inequality and polarization, but it is also essential to establish a fair market order.

<Host>
Understood. Professor,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society in terms of fairness?

<Biung-ghi Ju>
Korea's economy has grown rapidly, but our democracy, government and public sectors, institutions, and the maturity of society have not kept up with the pace of economic growth. Minor corruption at the lower levels of state power and administration has been greatly reduced.

But what is essential are corruption of power and other kinds of severe corruption. The opaque practices and irregularities that can only be seen in a developmental dictatorship are still ingrained in business and society. The chaebol conglomerates, intertwined with hereditary management and familial food chains, still dominate the Korean economy.

In each sector of the economy and society, elites of powerful groups have created a hotbed of corruption of power and other kinds of corruption closely linked to the interests of the private sector. Corruption crimes committed by this coalition between those with power and the private sector, such as financial fraud cases like Lime and Optimus in 2019, embezzlement and bribery cases involving presidents and large corporations in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and real estate development corruption, such as the LCT case in Busan, involving builders, prosecutors, judicial officers, and high-ranking local government officials continue to occur.

This is only the case with exposed crimes, not to mention the hidden crimes and corruption that evades the law. It is a state in which those with power, bureaucrats, and the media have formed substantial structural collusion to seek rent, including privileges for one's former post for high-ranking officials,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and lenient judicial practice of severe crimes involving chaebols and powerful people, etc.

Trust in the government and perception of corruption are low compared to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we're at. According to recently published OECD data, only 30% of Koreans trust the government. This is far from the OECD average of 43% and is very low.

The same data found that nearly 79% of South Koreans, almost four in five, perceive corruption as widespread. This is very high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of 43%.

Corruption levels higher tha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are also reflected in a survey conduct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 this survey, Korea's 2017 corruption perception was 54 out of 100. It ranked 51st out of a total of 180 surveyed countries. It was the lowest among OECD member countries and comparable to China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Fortunately,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has steadily improved over the past three years. Korea ranked 39th in the 2020 evaluation. It is still at the bottom among OECD member countries.

The backdrop to such low social trust and high corruption is corruption of power prevalent in the public sector and society as a whole and an unfair market order centered on chaebols. It has become common pract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to re-employ themselves in audited institutions or the related private sector and to exercise influence over powerful institutions through privilege for one's former post in the legal and financial circles.

Due to this type of corruption of power, the surveillance and supervision system in the public sector does not function normally. In each sector, such as fair trade, financial supervision, industrial safety, and labor supervision, the problem of a poor monitoring system is constantly being exposed.

In such an unfair society, as a few strong people monopolize the achievements of the national community, the portion that the majority of the people can share is inevitably reduced. Inequality and polarization are bound to intensify. The government's capac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weak and the bargaining power to protect themselves in the market are low.

Ultimately, the powerless majority will have no choice but to suffer from inequality. Barriers between classes are bound to rise as well. In such a society with unequal opportunities, an inequality trap is created in which the vicious cycle of corruption and inequality continues, and economic development is inevitably delayed.

The wage gap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in Korea,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nd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s too high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The disparities in working conditions, health, and quality of life are even more significant.

Indicators of polarization, such as the highest and lowest wage gap and the proportion of low-wage workers, have been at the top among OECD countries for the past decade or so. The same is true for the number of workers killed in occupational accidents and average working hours. Education, once considered a way to move up the social ladder, is now a means of maintaining class.

<Host>
Listening to you has got me thinking that unfairness in Korean society is quite severe compared to the economic level we have achieved. What do you think?

<Biung-ghi Ju>
Yes, that's right. In 2017, Korea reached $30,000 per capita GDP. The purchasing power parity, which reflects the price level, is called PPP. GDP per capita has reached 70% of that of the United States. This level is similar to the UK, France, and Italy. Recently, Japan has fallen to less than 70% of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s overtaken Japan.

The Korean economy has now emerged as a developed economy. To continue developmen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ind a development path fitting for a developed country. Gone are the days of high-speed growth at the expense of labor by giving privileges to large corporations through selection and focus. Can we catch up with advanced countries ahead of Korea and continue to develop without eradicating corruption and the injustice that has taken root?

The strategy of sacrific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economic growth through low wages and long working hours does not work. We're now in a stage of development that requires a high level of skill, professional competence, and creativity.

Developing the innovation capacity of individual citizens, organizations, institutions, and society is necessary. In an unfair environment where the strong monopolize opportunities and profits, the majority are at risk of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such a society, each individual seeks comfort and stability rather than choosing new challenges and endeavors through education and competency development. Neither ambitious entrepreneurs nor creative innovators will emerge.

<Host> Currently, continuing with imitation and relying on a catch-up economy has reached its limit. Nevertheless, innovation is necessary to sustain economic development. For innovation, fairness in the market and distribution must be achieved, but the current Korean society needs to be fairer. We can sum it up like this.

In particular, the unfair market, structural collusion, and polarization you spoke of with several examples seem very serious. We will continue to talk about this in more detail next time.

2-2 Fairness and Korean society (2)

In the last lecture, we discussed how inequality and polarization should be prevented through fair market and distribution and emphasized that this is the beginning of innovation. This time, we will build on this and discuss the unfair elements of current Korean society.

I expect we will speak broadly about this and a corporate ecosystem that may even be called predatory capitalism, income inequality, gender discrimination, social inequality through meritocracy, and social polarization.

<Host>

Hello, professor. Thank you for making time to continue with our talk today. Last time, the injustices in the current Korean society were mentioned. This time, what would you like to emphasize as the most critical injustices?

<Biung-ghi Ju>

They would be the bad attributes of predatory capitalism. These would be the winner-take-all mindset and unequal power dynamics prevalent in transactions between companies and the labor market, market order corrupted by the collusion of capital and governmental authority, and corporate management governed by personal relations. Such injustice and corruption are the fundamental reasons for exacerbating inequality and polarization and sacrificing the quality of life of many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ople.

<Host>

Some might argue that describing the current social economy of Korea as "predatory capitalism" is a bit excessive. What do you think?

<Biung-ghi Ju>

The expression predatory capitalism is used in reference to a situation where those with money and power can earn money without too much effort at the cost of the powerless majority. Capitalism operates on the basic law of pursuing the private interests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Thus, in a capitalist society, it can be seen that predatory motives can always be at work, in which the strong exploit the weak to profit.

Many economists, including Thorstein Veblen and John Maynard Keynes, pointed out such problems with capitalism. Predatory capitalism is itself unethical and even anti-human. In addition, predatory greed causes inefficiencies in resource allocation and hinder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long history of capitalism, the exploitation of labor, the pursuit of monopolistic rent, coalition and collusion of those with money and power, and abusive attacks of such predatory capitalism have been the subject of important reforms, and these reforms are still ongoing. Regulations were introduced to limit unethical and ineffective predatory greed. The extension of workers' rights, such as the right to organize,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and the expansion of anti-monopoly and fair trade regulations, are the basic order of advanced capitalism obtained through these reforms.

Because laws and social institutions could mature this way, the developed countries of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have developed as they are today. Korea must also achieve the advancement of capitalism achieved by these advanced countries.

<Host>
How do the characteristics of predatory capitalism appear concretely in the Korean economy?

<Biung-ghi Ju>
Common characteristics of predatory capitalism are the polarization of wealth and income, a high proportion of the vulnerable working class, hereditary wealth and social status, and the opaque public sector and corrupt governmental authority.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predatory capitalism include inter-company transactions dominated by bad practices such as technology stealing and slashing delivery unit prices, high wage and return gap between SMEs and large enterprises, and a high share of low-wage labor and the rate of occupational accidents characterize Korean capitalism.

Even when chaebol families and owners of large corporations engage in illegal, evasive, and expedient acts for personal gain, the monitoring, supervision, and punishment by governmental authorities do not work correctly.

In the public sector, including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branches, a greedy elitist meritocracy, in which governmental authority feeds on economic power and capital, has taken root in Korean society as a custom. We've normalized former bureaucrats re-employed in the private sector and earning billions of dollars by buying and selling governmental authority.

Thus, the reality is that bad legal order, where there is one law for the rich and another for the poor, dominates, and the social trust in the law is very low. The characteristics of this environment of corrupt public officials, where governmental authority has become a means of making money, various financial frauds involving the government, real estate development corruption cases, chaebol family's exploitation of private interests, and stock price manipulation show that Korean society remains in predatory capitalism.

Where do the enormous amounts of money and resources that satisfy this predatory greed come from? The blood, sweat, and tears of the majority of white-collar and blue-collar workers who work long hours, high job stress, and risk of occupational accidents.

<Host>

I would like to hear more about the injustice and inequality caused by predatory capitalism. First of all, what do you think a fair society is? Is Korean society today fair?

<Biung-ghi Ju>

As mentioned earlier, the basic structure of society related to fairness and distributive justice in a modern democratic country embodies three basic principles.

The first is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opportunity: no one should be subjected to undue discrimination, and all should enjoy equal opportunities. This is why some laws and systems prohibit discrimination based on sex, race, religion, or origin and guarantee basic education and health for all citizens.

The second is the principle of fair distribution of achievements, in which the accomplishments of social cooperation are fairly divided according to contribution. In a market economy, achievement distribution is primarily carried out by companies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first to determine whether the income gap in the market is fair; if this is not, market inequities must be regulated or corrected by the government's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Third, each citizen must be protected from severe misfortune. It is a principle that guarantees the equal right to a safe life. Health, employment, pension,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re based on this principle. The same is true for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 just society is a society that embodies social consensus on the three principles of fairness and distributive justice through laws and institutions.

What about Korean society? Income disparities in markets that resemble uneven playing fields are too high. The government's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which needs to correct the severe income gap, is at the lowest level among developed countries. Welfare and social safety nets are also weak, failing to adequately protect people suffering from severe misfortunes such as work-related injuries, job loss, disasters, and accidents.

As mobility between the social classes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inequality of economic opportunity between classes has also become a big problem. Economic inequality of opportunity between the sexes is even worse. The 'substantial' discrimination women experience in economic activities is the worst among OECD member countries. This is something we should be embarrassed about.

Korean society is not establishing any of the three basic principles of fairness in a modern democratic society. This is when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Quantitatively, it can be said that we have become a developed country. However, in terms of quality, we're still a developing country. Our body is a developed country, but our mind is still a developing country. Only when our mind also becomes a developed country can development continue.

<Host>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about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Korean society today. How big of a problem do you think this is?

<Biung-ghi Ju>
First, you must set a standard to determine a problem's size. If the standard is the global average, there may be no problem. If the standard is the global average, there may be no problem. That's because this would mainly constitute underdeveloped, developing countries behind Korea. Many people say that there is no problem with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Korean society with this standard.

They're not wrong. But this isn't very meaningful. Developed countries are my standard. Especially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wealthier than Korea. Because, of course, to progress, this must be so.If we set the standard like this, the problem is serious.

Since the mid-1990s, Korean society's income distribution has deteriorated as rapidly as economic growth. Using data from the World Income Database, let's look at the change in the share of pre-tax personal income in the top 10% of high-income brackets as a percentage of total income. As you can see in the figure, in 1990, it was 34%. In 2019, it increased to 46%. It can be seen that the change in inequality is the fastest among major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the level of disposable income inequality, in the mid-1990s, it was an egalitarian society that was lower than the average of OECD member countries. However, in 2017, it recorded the sixth-highest Gini coefficient value of 0.355. We've become a very unequal society.

The figure shows this change in income inequality with two indicators: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percentile (P90/P10) of disposable household income. The arrow length in this figure indicates the rate of change in income inequality.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it can be seen that Korea has changed the most rapidly.

Various indicators of income disparity are also very high. The ratio between the median income and the bottom 10% of income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The poverty rate represents the proportion of people whose income level is below 50% of the poverty line-median income.

Korea's poverty rate is 17.4%, the third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In particular, the elderly poverty rate is the highest at 43.8%. The wage gap has also been consistently bad for the past 20 years or so. Using percentages representing the low wage, i.e., the proportion of workers earning less than two-thirds of the median wage and the ratio of the top wage (P90) to the bottom wage (P10), both are among the top in the OECD.

This rapid deterioration in income distribution is due to the inequality in market income following economic growth and aging. But, this is because there have been no major changes or slow progress in the advancement of market order, the government's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and welfare expansion.

The government's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can be measured by the difference between market income and disposable income inequality, and the vertical axis in the figure shows this. In this figure, it can be seen that Korea is at the lowest level among OECD member countries.

The arrows in this figure show the change i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by the government's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by country. It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market income inequality and disposable income inequality. Long arrows of advanced Northern European countries indicate how big the government's role is in reducing inequality, and short arrows of Korea show the opposite, the small role of government.

<Host>

Many people agree tha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improved. Instead, many argue that men are disadvantaged. Could you explain more specifically about gender inequality of opportunity?

<Biung-ghi Ju>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Korean labor market is not a thing of the past. Discrimination has been greatly reduced in the recruitment process, mainly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in the private sector, which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employment, the problem still needs to be addressed. Now, of course, open discrimination is prohibited. So formal discrimination may have been reduced. But substantial discrimination in recruitment and promotion persists.

Many indicators objectively show this reality. Even in the public sector, the proportion of women in senior positions is extremely low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It's worse in the private sector.

In my paper published in the Korea Economic Forum in 2019, I measured the rags-to-riches index of opportunity inequality between genders, which is the probability of not being successful because of being female. The results are measured at 66% and 50%, based on labor income and hourly wage. Even if women excel in their abilities, more than half are in frustrating situations.

This trend has continued since the early 2000s until recently.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between classes is primarily overcome by having a college degree or higher.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with gender inequality of opportunity.

Gender inequality of opportunity does not change much, even if it is restricted to those with a college degree or higher. The value is still high. They say that higher education does little to overcome gender inequality of opportunity. It will be challenging to reduce gender inequality of opportunity unless women's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such as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career interruption due to childbirth and marriage, are not fundamentally eliminated.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OECD, have repeatedly warned that the actual discrimination that women face is so stark.

Nevertheless, the misguided and immature attitude that there is no problem with procedural and formal discrimination is still prevalent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these attitudes appear as social conflict between men and women over meritocracy. It seems that there are people who instigate this conflict. It's quite absurd.

<Host>
It seems natural to agree with meritocracy, which states that it is fair to obtain socioeconomic status according to one's ability. What do you see as the problem?

<Biung-ghi Ju>
In a meritocracy, the procedure for evaluating abilities must be established, fair screening processes implemented, decisions made on whether to hire and promote, and on the size of compensation according to abilities. On its own, it seems very simple, clear, and obvious. However, if you think about it a little more, it is easy to see that this standard cannot provide an alternative to any of the three basic principles of a fair society.

How do we measure abilities? How much will be compensated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ability, and how large will the gap be? What if there are people who have difficulty acquiring skills in the first place? What to do with those who have fallen behind in competition and who have failed? Each of these is a basic distributive justice problem that meritocracy cannot solve.

Nevertheless, it is surprising how many people see meritocracy as an alternative to making an unfair Korean society fair. I lament because politicians and social leaders, the media, and academics encourage this thought. What makes meritocracy seem plausible is its procedural fairness. No one would object to minimal procedural fairness. However, that alone does not guarantee actual fairness. A bigger problem is that imperfect meritocracy becomes a breeding ground for injustice.

There is no other system that operates under meritocracy as much as democracy. This is because in the market, individuals and companies are recognized for their capabilities according to their productivity, and they receive income and profits that are determined in this way. The same goes for employment and promotion.

We have experienced countless social costs of injustice caused by capitalism, either directly or in our history.This shows the limits of meritocracy. In an unfair, winner takes all market where the strong dominate the weak, meritocracy creates a dangerous society that tolerates the laws of the jungle.

A society where there is no principle of fair distribution and only the strong can enjoy the right to a safe life will inevitably become a dangerous society for many. Numerous economists, political philosophers, and thinkers have pondered this issue and developed theories of justice, moral philosophy, and economics.

Because of this simple meritocracy in an underdeveloped capitalist society, a society in which extreme inequality and polarization,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are rampant has been created. Such was the case in the capitalist societie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in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And this is still the cas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persistence of extreme inequality and poverty further separates the discriminated from the established groups. In a stratified society, competence is created not only by individual efforts but also by the material and immaterial resources of the group to which they belong. Opportunities to develop skills are limited in discriminated groups, and freedom from discrimination in a meritocratic society is deprived. Meritocracy reinforces this structured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Affirmative action, which the US has been implementing for a long time, is a policy introduced to resolve structural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immigrants, and women that meritocracy cannot solve.

The United States and most advanced countries are introducing preferential measure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minorities. This is to ensure the first basic principle of fairness,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Not for formal equality of opportunity but for real equality of opportunity.

Korean society is currently experiencing a serious polarization problem. The income and quality of life gaps between sectors, different-sized companies, and types of employment have become too wide. This is also a problem created by Korean society regulating the labor market with the casual attitude of meritocracy.

As a solution, in 2018, the government made the aggressive move of converting non-regular workers in public institutions to regular workers. However, significant social conflicts arose in implementing these policies because of the well-intentioned victims.

One can criticize the government for not preparing detailed measures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in advance. But that it is wrong because it goes against meritocracy is not a proper critique. An unfair society created by meritocracy cannot be solved by meritocracy. Reducing non-regular workers is only possible with the voluntary efforts of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 policy alone has its limits.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bridge the gap between non-regular and regular workers. The wage gap, the labor environment gap, and the social safety net gap must be resolved to create a society where non-regular workers can work with the same peace of mind as regular workers.

I believe no other task is more urgent and important than creating a fair society by realizing a mature democracy and a welfare state. By expanding welfare and social safety nets, equality of opportunity and distributive justice should be realized, and a society where anyone can live with peace of mind. Only then can the majority of people embark on drastic innovation. That is the way to sustai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way to become a technology leader.

<Host>

A society wher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distributive justice is realized by expanding welfare and social safety nets and where everyone can live with peace of mind is the fairness that Korean society needs today. We can sum it up in this way. And the procedural fairness of meritocracy alone does not guarantee actual fairness, but it is also a breeding ground for injustice. This was very notable in my mind.

Next time, we will hear from the professor about the solutions available to make the unfair Korean society fair.

2-3 Creating a fair society (1) :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education as a way to move up the social ladder

Last time, we spoke about the current unfair situation in Korean society. We talked in detail about the status of social inequality and polarization caused by unfairness, gender discrimination, and income inequality meritocracy in the corporate ecosystem and how this hinders innovation.

This time, as previously announced, we will hear from the professor about the solutions available to ensure fairness in Korean society for innovation.

<Host>

In relation to the process required by Korean society, you first suggest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education as a way to move up the social ladder. Is there an important reason to emphasize education?

<Biung-ghi Ju>

An important reason for the rapid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is the continuous supply of excellent human capital. The barriers between classes were not as high as they are now, and public education spread rapidly, allowing each individual to dream of climbing up to the higher classes through education. Moreover, rapid economic growth has expanded the supply of decent jobs.

This helped make these people's dreams come true. Skill and capabilities could grow together. This not only occurred in Korea but in Japan and Taiwan as well. On the other hand, many countries like the Philippines and countries in Latin America failed in this endeavor. It is evaluated that human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education did not continue, and they fell into the so-called middle-income trap.

In the past, the mechanism by which the Korean economy grew based on human capital was able to work because the function of education as a way to move up the social ladder worked well. Education and human capital accumulation helped rapid economic growth. There was a virtuous cycle in which good job opportunities created through rapid economic growth led to education and human capital accumulation.

So, although labor exploitation was rampant in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only emphasized growth at the expense of welfare, education and human capital accumulation continued, and thus growth miraculously.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can be seen to be greater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economic development has reached an advanced level, and technological transformations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that are taking place now require the importance of human competence.

<Host>

In the past, education functioned as a way to move up the social ladder. Is that not the case now?

<Biung-ghi Ju>

Education, once a means to move up the social ladder, is now a means of maintaining class. Using the latest data from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you can find the probability of getting into prestigious universities, including the country's top five schools and major medical schools. The result is that 7 out of 10 students with poor household conditions will fail to enter a prestigious university regardless of their innate abilities and efforts.

Many studies report a high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households. According to one study (Young-cheol Kim), a student's background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their grades by more than 50%.

Using the above-mentioned rags-to-riches index of opportunity inequality, there is a very high probability that students with poor household socioeconomic status will not be able to achieve the highest aptitude test scores. Using the 2005 and 2011 government-sponsored scholastic aptitude test data, it is 70% in the foreign language domain, that is, English, and 50% in language, that is, Korean domain.

This high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is due to the significant absolut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nd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time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 status of households. This is because students with better home environments spend more on private tutoring and have more time for self-directed learning. Opportunity inequality drops markedly when only students with the most extended amount of time for self-directed learning are included.

If you grow up in a challenging environment, getting into a good university will be difficult. Conversely, this also means that if you grow up in an affluent background, you will have a much better chance of getting into a good university. According to the 2020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data, 55% of the new students at the top 3 prestigious universities, so-called SKY, belong to the top 20% of income households.

<Host>

It is surprising to hear that half of the first-year students entering SKY belong to the top 20% of the income bracket. I knew the “rags-to-riches” phenomenon was difficult to achieve in this era, but I didn’t realize it was this bad. I know that eve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occupation, and income level greatly impact their children's education. Are there any particular reasons to pay more attention to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Biung-ghi Ju>

That’s right.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between classes is also high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problem is that, un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Korea, this educational opportunity inequality leads to economic opportunity inequality.

Statistics Korea's social survey reveals the seriousness of economic opportunity inequality. In the early 2000s, only 10% of respondents were pessimistic about the possibility of their children's socioeconomic status rising. However, since 2015, this percentage has risen rapidly to over 50%.

This change can also be confirmed by using actual income data. Economic inequality between classes can be identified as an indicator of class mobility. One of them is the aforementioned rags-to-riches index of opportunity inequality.

I studied the long-term trend of economic opportunity inequality with my graduate students in 2021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 an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HIES) data. According to this, inequality of opportunity exists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households of origin, and it has been steadily rising since the 1990s.

The solid red line shown in the figure is the trend of the rags-to-riches index of opportunity equality value of permanent household income since 1990. As mentioned earlier, the rags-to-riches index indicates the probability of failure due to poor socioeconomic background, even with sufficient ability and effort. This rags-to-riches index of opportunity equality was 17.96% on average for the four years befor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The average was 39.52% for four years from 2013 to 2016, about double.

The two dotted lines in the figure show the trend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by limiting the analysis target to those with a high school diploma or higher education. If you have a high school diploma or higher, it is indicated by the gray dotted line at the top of the figure. Still,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degree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If you have a college degree or higher, it is the yellow dotted line at the bottom, but you can see that the degree of opportunity inequality is reduced by more than 50%. This demonstrates the potential to overcome significant inequality of opportunity through higher education. It shows that closing the education gap can help reduce economic inequality of opportunity.

Ultimately, if the opportunities for university education become unequal among social classes,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will not be able to get a proper public education and will give up early. Higher education that focuses on children from wealthy families misses the potential of many children from many less affluent families.

Innovators like Einstein, Edison, Bill Gates, and Steve Jobs don't all come from wealthy families. If we fail to find innovative leaders who will lead Korea in the future evenly from all levels, it will eventually come back to the loss of all the people. All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universities, fail to perform this function properly.

Amid the COVID-19 and climate crisis, the world faces a significant energy and digital technology transformation. We are entering an era in which the importance of human capital is much greater than in the past. We must restore the function of education as a way to move up the social ladder as soon as possible and create a society in which equal education opportunities are guaranteed to all young people.

Above all, we must ensure that students from various social classes and regions can receive an excellent university education. Reputable universities should take the lead in this effort. We must select students from various backgrounds with potential and provide them with opportunities to realize their potential through university education. This is the way to increase social contribution and develop universities, society, and the economy together.

<Host>
What you're saying resonates with me. Ultimately, reforming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seems necessary to restore the function of education as a way to move up the social ladder.

<Biung-ghi Ju>
As with our current university entrance exam system, evaluating high schools differently or ranking them according to exam scores is difficult.

So far, it can be seen that the government's control over university entrance exams has been focused on the selection process, such as through early and regular admissions. Instead, by evaluating the selection results, better improvement measures can be found to reduce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restore the function of education as a way to move up the social ladder.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result of students studying at Korea's leading universities from being unequally distributed towards the upper-income bracket as it is now. The same goes for law school and medical school. This may include assessing incoming students' class and regional diversity, increasing financial support to universities with high student diversity or adding the class and regional diversity criteria as qualifications for university financial or research support.

In this way, the selection process can be left to the university. Universities will voluntarily make efforts to strengthen the diversity of incoming students by developing a new entrance examination that considers both the student's grade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Without such special measures,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of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between classes in the current university entrance exam system of adjusting only the early and regular admission ratios.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re also actively introducing a selection system that considers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students as well as SAT and GPA scores. Higher education policies need to change so that Korean universities can also change.

<Host>

Thank you, professor. This time, we have learned that we need to restore the function of education to move up the social ladder and nurture the talents required for innovation. We will continue with this topic next time, but instead of the educational ladder, we will hear about creating a ladder for upward mobility in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2-4 Creating a fair society (1) : Creating a ladder for upward mobility in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Last time, we discussed the need to restore the function of education as a way to move up the social ladder to nurture the talents needed for innovation. To restore the function of the ladder in a short period, you emphasized a society where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is guaranteed to all young people and where students from various social classes and regions can receive an excellent university education.

In this lecture, we will continue with part two of creating a fair society and listen to Professor Biung-ghi Ju talk about a social ladder in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Host>

Hello, professor. In the last lecture, you discussed the need to restore the function of education as a way to move up the social ladder to nurture the talents needed for innovation. Please tell us what you think about the social ladder regarding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Biung-ghi Ju>

The ladder for upward mobility through employment, start-up and entrepreneurial activities, and university entrance must be sufficiently built. We are currently in an era where an individual without prestigious university degrees or even any university degrees and ordinary part-time employees can succeed and become famous. Companies, too, need to break away from the traditional hiring method that recruits talented people based on their academic backgrounds.

Increasing the recruitment of high school graduates, mainly in public enterprises and the public sector, and expanding the recruitment of local talents is also a good way to solve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between classes and regions that occurs in employment and build a ladder for upward mobility in employment. If this is successful, high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in metropolitan areas will also be resolved.

The gap in the labor market must also be resolved. Anyone who does any work required by Korean society should be able to enjoy a happy and dignified life. Still, many people work 50 or 60 hours a week with no days off, earning wages close to the subsistence level.

Many workers are also at high risk for accidents. Though our country has become a developed one,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remains at the developing country level.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large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nd men and women is too large.

Successful IT companies are also starting to appear in the Korean economy. However, there are few examples of successful corporate growth in export-oriented industries. The corporate ecosystem is still made up of a few chaebol conglomerates, a small number of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mainly small enterprises. This is because the path to grow into medium-sized and large companies through the stages of start-ups and SMEs is blocked.

<Host>

When you say that the path to growing into medium-sized and large companies through the stages of start-up and SMEs is blocked, it sounds like you're saying the ladder for upward mobility is nonfunctional. What do you think is the cause of this?

<Biung-ghi Ju>

The ladder for upward mobility toward company growth is being blocked by chaebols and large conglomerate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chaebols remains a serious problem. The chaebols and large corporations abuse their superior positions, and adequate compensation for the performance of partner SMEs is not provided.

In addition, bad management practices in which the head of a large conglomerate family embezzles the profits through intra-group transactions, cronyism, and corrupt government authority hinder the growth of healthy SMEs. In an economy where money and power networks are more important than productivity and innovation, it is no wonder that innovators cannot expect startups and growth.

In the end, the biggest victims of such an economy, where the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s been blocked, are the majority, powerless ordinary people and workers. If SMEs, which account for more than 80% of employment, struggle, good jobs will inevitably decrease, and the quality of jobs will inevitably deteriorate. When the powerful in an unfair market economy monopolize the economic rent, the lives of the many and the weak are bound to be devastated.

<Host>
I see. Concerning this, could you speak about ESG management, which you have been talking about a lot lately?

<Biung-ghi Ju>
Recently, interest in ESG management, which stands for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has been grow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been emphasized for a long tim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centering on major developed countries. Social responsibility is not only an ethical issue but can also affect a company's sustainability through risk management in the supply chain and the company's social reputation.

Due to the climate crisis and global governance cre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operation, responsibility for carbon emissions is now starting to be recognized as an urgent issue related to immediate investment attraction and profit creation rather than a long-term risk management issu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manding that companies take responsibility for not only direct carbon emissions but also indirect carbon emissions from supply chains. Therefore,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is also becoming an important issue for companies.

Capitalism, which emphasizes ESG triggered by the climate crisis and energy transition, will significantly change business management. Global companies such as Google and Apple are vying for the 'RE100' declaration to use only 100% renewable energy in their supply chains by 2050. Korean global conglomerates have also taken part in this.

<Host>
Then, as you mentioned, how will ESG management, a global trend, affect Korean capitalism?

<Biung-ghi Ju>
I think this is a turning point in world history. In particular, the energy transition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and the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requires a considerable shift in the global economy and trade order. It is a great challenge for Korea, but if successfully overcome, it can also be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economy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In particular, a trend emphasizing ESG is a good opportunity to push forward the advancement of Korean capitalism. Korean capitalism has great potential to develop through ESG outcomes. This is because, as mentioned earlier, Korea's unfair market order can be corrected through ESG achievements.

Win-win growth with business partners, employee welfare and capacity building, and the spread of innovative aptitude and rational governance, important tasks that have been ignored until now, will follow. This way, new growth engines can be created to enhance the economy's growth potential.

Gone are the days of concentrating privileges and investments on a handful of conglomerates. In this era, supply chains, corporate cooperative networks, and innovation capabilities of society are important in addition to the capabilities of individual companies.

Interest in corporate ESG performance needs to spread centered around consumers and civil society. Only with such a mature national consciousness can a social atmosphere that condemns predatory acts such as unfair trade and unjust exploitation of private interests be formed.

The Korean economy has now entered the advanced stage of quantitative indicators. However, public supervisory bodies, authorities, and bureaucracies are still in the era of authoritarianism. It's time to shed this, as it no longer fits our current economy.

The practice of weak punishment for serious corporate crimes such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nd accounting fraud must be eradicated. Fundamental reforms of power apparatuses and the bureaucratic society are needed so that strict supervision and severe punishment can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size of the economy and the stage of development.

The US economy has grown at a steady 2% level over the past 100 years. The cornerstone of sustainable growth is a dynamic corporate ecosystem in which innovative start-ups and new leading companies enter and grow. Such a healthy corporate ecosystem was possible because of strict public monitoring and judicial punishment for antitrust and fair trade.

Strict supervision is required to ensure that strong players with market power do not create barriers to entry and block innovation. Only then will it open the way for start-ups, new busines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grow. In this way, we need to create a success ladder where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can grow through competency development, employment, start-up, and innovation.

<Host>

Thank you, professor. This lecture discussed creating a ladder for upward mobility in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and ESG management triggered by the climate crisis and energy transition. To conclude this lecture, could you tell us what we need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and resolve various aspects of social inequality in Korea?

<Biung-ghi Ju>

The rapid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was due to high enthusiasm for education and a high level of human capital accumulation, as mentioned earlier.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re was a wide range of opportunities for advancement through education and cultural assets that value education. But now, these growth engines are being seriously damaged due to high inequality, polarization,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between classes.

The Korean economy, which has entered the advanced stage, now needs qualitative matur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mature capitalism, we must successfully prepare for the world's historical transformation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transformation, and energy transformation.

Creative and innovative human resources are most important to sustain economic development and take another leap forward as an innovative leading country. We must transform into an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that can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foster investment in people, education, and human capabilities by resolving unfairness,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the Korean economy.

<Host>
What concrete measures are there to resolve inequality and social polarization and strengthen investment in people, education, and human capabilities?

<Biung-ghi Ju>
First of all, the government's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 at least the middle level, beyond the lowest level in the OECD.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which is relatively poor due to income disparity and polarization caused by an unfair market order, must be raised through social welfare and safety nets.

The current low share of social welfare spending must also be raised to the level of the OECD average. We must also improve the welfare system to minimize welfare blind spots. In particular, the blind spots of employment insurance are expanding due to rapid changes in employment relations. This issue must be resolved urgently.

The problem of dual structure and polarization in the labor market can be solved only when a fundamentally fair market order is established. Reform of laws and systems that strictly supervise and punish chaebols and conglomerates for unfair rent-seeking is necessary.

Only when SMEs can be fairly compensated for their performance can the majority of the workers they hire be adequately compensated, and the wage gap and polarization can be resolved.Institutional reforms must be continued so that the monitoring systems and supervisory bodies such as finance, fair trade, and labor that manage fair markets can operate normally.

Effective punishment should be implemented at a level that can deter unfair conduct in advance. The monitoring bodies' authority, workforce, and expertise should be strengthened. The bureaucratic society's moral hazard and corrupt practices must be eliminated immediately.

Making inclusive investments in education and accumulating highly innovative human capital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Korean economy to develop continuously and transform into a leading economy. Regional disparities in the supply of basic goods that enhance individual capabilities and quality of life, such as education, medical care, and welfare, must be resolved.

Expanding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facilitie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s are closely related to major policy goals such as improving equality of opportunity, solving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increasing women's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and human capital. The public sector must strengthen its role to make the most of the benefits of early intervention. 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cash support such as child allowance must be expanded, and the quality of service support must also be improved.

The secondary education and university entrance exam systems also require significant improvement in bridging the educational gap between classes and regions, equality of opportunity, and quality of life for young people. To this end, exhaustive competition for high school entrance exams should be minimized at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ages.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velop measures to increase equality of opportunity in college entrance exams.

Universities have two critical roles: undergraduate education and a research focus that leads to innovation in the Korean economy. We must avoid such a method that results in high-ranking universities intensively selecting children from wealthy families as it is now.

Talent exists in the less wealthy classes, but they are inevitably excluded. Financial incentives should be introduced to evaluate and support the social class and regional divers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at universities even more. In addition, expanding the recruitment of local talents, mainly in the public sector and public enterprises, and fostering local universities can also improve equality of opportunity in higher education Local universities can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as a base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is way, the problem of centralization of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can also be resolved.

This lecture concludes that inclusive national development that realizes fair markets and distributive justice is also necessary for innovation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For the realiz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the expansion of welfare and social safety nets and the strong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of the government is necessary. Investing in people in an inclusive country increases the quantity and quality of human capital, which is the backbone of the Korean economy. A fair market will allow an advanced corporate ecosystem in which innovative SMEs and large corporations cooperate to take root.

<Host>
Developing an inclusive country and investing in people in such a country will ensure fairness and ultimately lead to innovation for sustainable growth. We can summarize it as such. You've given us a lot of important things to think about.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speak with us.

<Biung-ghi Ju>
My pleasure. Thank you.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2周 公正和革新的良性循环

2-1 公正和韩国社会 ①

大家好，我是裴锡满。本系列讲座的主题是“韩国经济的革新与未来”，这是在韩国经济与韩国学术传播中心的企划下，与首尔大学韩国经济革新中心合作进行的讲座。

2021年秋，首尔大学经济系的在职教授与《每日经济新闻》以接力访谈的形式，对当前韩国经济进行了多角度的诊断，对为了可持续发展要怎样革新提出了意见，并由韩国经济革新中心牵头，于年底出版了《革新的开始：如何再次提升韩国经济的增长潜力》一书。

让我们有请几位参与这项工作的教授,听听他们的看法，以及他们想补充说明的内容。

本次课程有请朱丙起教授以“公正和革新的良性循环”为题为我们带来精彩的课程。　朱丙起教授在为这次特别讲座奠定基础的著作《革新的开始：如何重新提升韩国经济的增长潜力》一书中，撰写了相同题目的第四章。

<主持>

教授您好。首先本次特别讲座的关键词是"革新"，但是您似乎更为关注的是"公正"。 请您从为什么要如此开始为我们谈一谈好吗？

<朱丙起>

大家好。想以"革新"为关键词谈论公正的原因是，公正的社会是经济发展的重要动力。 我认为，这是许多发达国家和发展中国家在迄今经历的经济发展历史中所吸取的重要教训。

在不平等程度低、各阶层壁垒不高的国家，经济发展更加成功。 一个拥有公正社会的国家能够长久维持经济增长。 当然，我认为公正本身是比革新更重要的目标。 但是，为了实现革新、经济发展和经济增长的目标，这也是非常必要的。

在现代社会，当我们谈论公正和正义问题时，我们谈论的是自由和基本权利的问题，以及分配正义的问题。 约翰·斯图尔特·密尔和约翰·罗尔斯等许多政治哲学家也曾谈到过这两个问题。 前者与分配或产生结果的过程密切相关。 后者与结果定义有关。前者比后者更是根本问题。 然而，在一个以成熟的民主主义和市场经济为基础的国家，后一个问题才是主要关注点。

民主主义历史较短的韩国仍然认为前者的问题很大。在本讲座中，我将从公正的市场秩序的角度来讨论这个问题。 当然，分配正义，即结果分配的公正性，也是一个非常重要的问题。 这两个公正问题都与经济发展密切相关。

<主持>
也就是说经济发展所需的公正是市场的公正和分配的公正对吗？

<朱丙起>
是的，我们将探讨公正市场和公正分配这两个含义的公正。两者对经济发展和经济增长都很重要。

首先，所谓的主流经济学教导我们，公正的市场秩序是效率的基本条件。 这里的公正的市场指任何消费者、劳动者、企业、资本家以及股东等不管哪一个经济主体，都不能享有"优越地位"的市场。

优越地位产生于特权、差别、信息不均衡、法律、制度或物理性权力或权力的不均衡。 不存在这种优越地位造成的力量不均衡，经济主体们才能在对等的关系中交易。这种市场叫公正的市场。

<主持>
有哪些例子呢？ 有句话说"有钱无罪，无钱有罪"，我认为这是不公平的。

<朱丙起>
是的，在法律面前不平等，所谓"有钱无罪，无钱有罪"思想蔓延的社会显然是不够公正的。

当言论和媒体为了资本而扭曲信息，或者拥有公权的精英官员与大企业、金融和房地产的大佬勾结，将公权私有化时，就会导致不公正和腐败的市场。 垄断就是经济学家们所说的不公正市场的最典型的例子。

垄断企业可能会剥夺消费者的利益、劳动者或合作分包企业的业绩。 这种垄断的横行会阻碍潜在竞争对手、合作企业和劳动者的创新和能力发展。 因为通过进入屏障、技术掠夺、单价战争等方式，剥夺了别人的机会和成就，切断了无力的乙的机会。

<主持>
韩国的市场经济公正吗？请您再详细地谈一谈为什么不公正的市场经济会妨碍革新。

<朱丙起>
在韩国，分包中小企业、中小企业劳动者、连锁加盟店、快递劳动者、承租人等不可能与原承办企业、用人单位、连锁加盟总公司、快递平台经营者、出租人等进行对等交易。存在高度的协商能力的差距。

这种差距会导致所谓的甲方和垄断的横行。在这样的市场中，会有动力去追求革新，努力接受教育为提高能力而努力，并渴望努力工作吗？

(我们) 应该提高经济弱者的协商能力，使他们能够在平坦的运动场上合作和竞争。 这种公正的市场才能提高革新的动力、教育和能力发展的意愿。像这样提高经济效率，可以促进经济的发展和增长。

最重要的是，必须根除"有钱无罪"、权力的私有化和享受前任礼遇等买卖公权力的行径、财阀对经营权的不当控制、谋取私利和操纵股价等破坏公正市场秩序的非法、变相、腐败的惯例。

必须依法严厉惩处这些严重的白领犯罪。 对于操纵股价、贿赂、做假账、谋取私利等，因为有权力，因为是财阀所以理所当然的对他们高抬贵手的社会应该结束了。我认为这是一个深刻的问题。

此外，应该让经济弱者有更高的协商力。 大多数劳动者行使集体交涉权的实际窗口是被封锁了的。
代表劳动者利益的政治家寥寥无几，言论和媒体对资本也比对劳动者更加友好。

只有经济弱者能从甲方和垄断横行中保护自己，并能进一步扩大接受良好的教育和发展能力的权利，才能消除协商力的不均衡。

<主持>
原来如此，那么，正如您所说，如果公正的市场得以建立，那么分配也将公正。 现在我们想听听关于公正分配的问题。 首先，教授对公正分配的看法如何？

<朱丙起>
一旦建立公正市场，分配的公正性显然会得到改善。 强化低工资弱势劳动者的协商能力，便能够提高他们的工资，缩小与其他部门的差距。

然而，仍然有个疑问，即由市场上的经济主体之间的竞争与合作所决定的分配就是公正的吗。 对于这个问题，自由至上主义者，如罗伯特·诺瓦克等自由至上主义者们的答案是肯定的。 即，他们认为根据正当的所有权和自由意愿进行的交易所产生的分配总是正义的。无论结果如何不平等，也都是正义的。

我很难认同这种极端的自由至上主义。我认为需要对经济主体的起跑线差距、市场决定的商品价格和工资差距是否合理进行价值判断。 因为市场价格不能与道德价值相提并论。

随着资本主义的发展，不平等加剧是普遍现象。 托马斯·皮凯蒂认为，这是因为资本在总收入中所占的比重越来越大。 如果看看实际的材料，就会一目了然。

当资本回报率没有显著变化时，这种变化最终将提高资本收入在总收入中所占的比重，并降低劳动收入的比重。 托马斯·皮凯蒂的《21世纪资本论》一书很好地描述了资本主义和不平等的变化。

资本主义的不平等会带来许多社会问题。大多数人会认同，市场产生的不平等应该在适当的程度上得到管理。 事实上，在所有的发达国家，这种社会共识引致了政府干预下的收入再分配和福利制度的扩大。

现代民主主义社会的政治和国家制度共同表现的公正和正义分配原则大致可以归纳为三个方面。

第一，机会均等的原则。应该确保每个人只要努力就能成功的公平机会。二是公正的成果分配。为了使合作成果能够根据贡献公平分配，有必要对市场的不公正情况进行规范，并需要政府对市场所得的再分配。

第三，是每个人都应该从残酷的厄运中得到保护的原则。也就是说必须确保人人享有最低生活质量的权利。　为了确保这些原则，需要的就是社会福利和社会安全网，以及对教育和医疗等基础设施进行支援的制度。

<主持>
好像也有人对公正分配与革新之间的关系持有反对意见。也有人认为把资源浪费在过度的福利上会阻碍革新。

<朱丙起>
当然，并不是说要无差别的增加福利财政，而是指能促进革新的有适当标准的福利制度，其标准是什么，从目前发达国家的发展历史就可以估量出来。

北美和欧洲的发达国家，国内生产总值的40%到50%的预算由政府运用。政府支出占比最大的就是社会福利支出。 从这些国家可以看出，政府积极的收入再分配机能和社会福利制度反而创造了有利于革新的社会环境。

当福利和社会安全网保护每个人安全生活时，所有成员才会有挑战的机会和意愿。 当所有社会成员都参与其中时，革新才会得到促进，经济发展的动力也会得到加强。

韩国迄今为止仅靠人的力量成功地发展了经济，并能够达到发达国家的发展阶段。 想要持续积累教育和人力资本，福利制度的作用至关重要。

在经济快速增长的过程中，必须消除日益严重的不平等和两极分化，加强福利和社会安全网，才能积累主导未来经济发展的高度的人力资本。 实现正义分配本身虽然也是一个重要目标，但对实现革新、发展和经济增长的目标也是至关重要的。

<主持>
那么您认为出现不平等和两极化的最根本的原因在哪里呢？

<朱丙起>
出现不平等的原因有很多。 首先，是由于能力和努力的差异造成的。这种不平等是不可避免的。

但不管是谁都可以努力提高能力，所以只要程度不严重，是可以被充分接受的。

然而，无论我们多么努力，都存在着无法克服的不平等。 即因为种族、性别或出身地区或家庭环境差，这些人机会有限而产生的不平等，这就是机会不平等。 必须根除这种不平等。

在机会不平等的社会里，许多弱者被迫放弃发展能力的努力。 只发生在少数特权阶层的革新很难持久。 教育、医疗、福利和社会安全网在降低层次间壁垒和扩大弱者的机会方面发挥着重要作用。当各种力量相互竞争和合作时，才能创造更加革新的社会。

前面所说的不公正的市场秩序也是加剧不平等和两极分化的重要原因。 如果财阀、垄断者等强者独占市场产生的总利润，那么大多数弱者能分到的利润必然会减少。

只有根除经济强者的横行，才能让弱者重新获得更大的份额。 因此，为了消除不平等和两极分化，福利和社会安全网也必须得到加强，但建立公正的市场秩序也很重要。

<主持>
明白了，教授，那么您认为韩国社会的公正性如何？

<朱丙起>
韩国虽然实现了经济迅速增长，但真正的民主主义、政府和公共部门、制度和社会的成熟还跟不上经济增长的步伐。 国家权力和行政末端的琐碎的腐败现象已经大大减少了。

但重要的是权力型违规和严重腐败。在独裁时代才能看到的不透明的惯行和不合理现象在企业和社会仍然根深蒂固。 世袭经营和亲戚食物链交织在一起的财阀大企业集团仍在左右着韩国经济。

在经济和社会的各个部门，形成了权力集团的精英们与民间部门的权益紧密相关的权力型违规和腐败的温床。 2019年Lime和Optimus私募欺诈案等金融诈骗事件，李明博、朴槿惠政府涉及总统和大企业的贪污贿赂案，涉及建设业者和检察机关 - 司法 - 地方政府高层人士的釜山LCity事件等房地产开发的不正之风，这种权力和民间部门勾结而发生的腐败犯罪层出不穷。

光是曝光的犯罪就已经是这种程度了，就更别提没有被暴露的犯罪和逃避法网的腐败行为了。 对高位公职人员的前任礼遇、滥用检察权、对涉及财阀和掌权者的严重罪行宽容的司法行径等，权力机构，官僚，媒体正在形成巨大的结构性串通来谋取利益。

(在韩国，) 对政府的信任和对腐败的认知，较经济发展阶段是偏低的。 最近发布的OECD资料表明，只有30%的韩国民众信任政府。 这与OECD平均43%差距巨大，而且可以说是非常低。 同一资料中表明，韩国国民五人中有四人，即近79%的人认为腐败现象十分普遍。 与OECD的平均值43%相比较，这一数值非常高。

腐败程度高于其他发达国家，在国际透明性机构(Transparency International)的调查中也有所体现。

在该调查中，韩国2017年的腐败认知为满分１００分中的５４分。　在全部180个被调查国中排名第51位。　不仅在OECD成员国中排名垫底，而且与中国和南美国家水平相当。　幸运的是，近三年来，腐败认知度在不断改善。　在2020年的评估中，上升至第39位。在OECD成员国中仍然排名低位。

在这种社会信任度低、腐败率高的背景下，有蔓延在公共部门和整个社会的权力型腐败和以财阀为中心的不公正的市场秩序。　高级官员在被监机关或有关民间部门重新就业，在法律界和金融界，通过前任礼遇对权力机关施加影响的做法已司空见惯。

这种权力型腐败使公共部门的监督和监督制度无法正常运作。公平交易、金融监管、行业安全和劳工监督等各个部门都不断暴露出监督制度松懈的问题。

在这样一个不公正的社会里，少数强者垄断了国家共同体的成果，因此，多数国民所能分享到的份额只能减少。不平等和两极分化必然加剧。　政府改善弱者生活质量的能力，以及市场中弱者保护自己的协商能力都很低。

最终，多数无力的国民将遭受不平等的痛苦。各阶层之间的壁垒也必然会增加。　像这样在机会不平等的社会里，造成腐败和不平等的恶性循环持续存在导致不平等陷阱，经济发展只能被拖延。

事实上，韩国大中型企业、制造业与服务业、正式职工与非正式职工之间的工资差距与其他发达国家相比，差距太大了。 工作环境、健康和生活质量方面的差距更为严重。

像最高与最低工资差距，低收入劳动者比例等代表两极化的指标近10年来在OECD成员国中名列前茅。　工伤事故死亡的劳动者人数和平均工作时间也是如此。过去被视为阶级阶梯的教育，如今也成为维持阶层的手段。

<主持>
听完教授的介绍，觉得韩国社会的不公正与经济水平相比，似乎是一个非常严重的情况，您怎么看呢？

<朱丙起>
是的，韩国在2017年人均国内生产总值进入3万美元时代。 反映物价水平的购买力标准叫PPP。人均国内生产总值已接近美国的70%左右。这一水平与英国、法国和意大利相当。 最近，日本已经下降到美国的70%以下，韩国已超过了日本。

韩国经济已上升为发达国家。今后要想持续发展，就必须寻找一条像发达国家一样的发展道路。通过选择和集中，将特权专给大企业，以牺牲劳动为代价实现高速增长的时代已经过去了。 如果不消除根深蒂固的腐败和不公正，我们能赶超领先于韩国的发达国家，实现持续发展吗？

以低工资和长时间劳动牺牲国民生活质量为代价实现增长经济的战略行不通了。现在是一个需要高水准的技术，专业能力和创造力的发展阶段。

要培育每个国民、组织和机构以及社会的革新能力。在强者垄断机会和利益的不公正中，多数国民将面临不平等和两极分化的危险。 在这样的社会中，个人不会通过教育和提高能力选择新的挑战和冒险，而是追求现实的安居和稳定，这样的社会不会产生富有挑战性的企业家和富有创造性的革新者。

<主持>
在维持模仿和追赶型经济已达到极限的现今，为了维持的经济发展需要革新，为了革新，必须实现市场和分配的公正，但是现在韩国社会似乎没有那么公正。似乎可以这样总结。

特别是教授通过各种事例为我们讲述了不公正市场和结构性串通以及两极分化，这些问题似乎非常严重。下堂课我们继续听取教授更加具体的说明。

2-2 公正和韩国社会 ②

本节课，我们将接着上节课教授指出的必须通过市场和分配的公正性来防止不平等和两极分化，这是革新的开始，继续讨论韩国社会的不公正因素。

教授将为我们从可以称之为掠夺式资本主义(predatory capitalism)的企业生态系、收入差距、性别歧视、能力主义显现出来的社会不平等，以及社会两极化等方面展开广泛的介绍。

<主持>
您好，教授，感谢您接着上堂课继续为我们讲授。 在上堂课里，您向我们展示了韩国社会目前不公正的方面，那么，接着上堂课，您觉得可以称之为最重要的不公正的是什么呢？

<朱丙起>
我认为，是掠夺式资本主义的坏的属性。 比如企业间交易和劳动力市场上普遍存在的胜者垄断和甲乙关系、资本和公共权力的串通导致的腐败的市场秩序、裙带关系所支配的企业管理等。 这些不公正和腐败就是导致不平等和两极分化加剧、牺牲大多数经济弱者生活质量的根本原因。

<主持>
有些人可能会认为，将韩国社会经济表述为"掠夺式资本主义"，听起来似乎过头了，您怎么看？

<朱丙起>
有金钱和权力，有力量的人可以不流汗赚钱，而无力的多数人被牺牲，把这种情况用贬低的说法表述出来就是掠夺式资本主义。 资本主义是围绕着个人和企业追求私利运作，所以说在资本主义社会强者压榨弱者谋取利益的掠夺式动机可以一直运作。

凡勃仑(Thorstein Veblen)和凯恩斯(John Maynard Keynes)等很多经济学家们都指出了资本主义的这些问题。 掠夺式资本主义本身就是非伦理性、甚至是反人类的。此外，掠夺式贪婪还造成资源分配效率低下，阻碍经济发展。

在漫长的资本主义历史中，榨取劳动、垄断寻租、金钱和权力的勾结和串通，以及这种掠夺式资本主义的陋习，都是改革的重要对象，现在这种改革仍在继续。 已经出台了很多限制反伦理的、低效掠夺式贪欲的法规。 团结权、集体谈判权、集体行动权等劳动者权力的扩大，扩大对反垄断和公正交易的规制等，都是通过这些改革所取得的先进资本主义的基本秩序。

正因为法律和社会制度能够如此成熟，北美和西欧发达国家才能有现如今的发展。 韩国也必须实现这些先进国家的资本主义先进化。

<主持>
在韩国经济中掠夺式资本主义的属性具体是如何表现的？

<朱丙起>
掠夺式资本主义表现出的一般特征是财富和收入的两极分化，以及高比重的脆弱的劳动阶层，财富和社会地位的世袭以及不透明的公共部门和腐败的公权力。

众所周知，以技术掠夺和砍掉交货单价等不良行为所支配的企业间交易、中小企业和大企业间的收入和收益率差距、低收入劳动的高比重和工伤事故率，这些掠夺式资本主义的属性，正在抹杀韩国资本主义的特征。

即使财阀家族和大企业的所有者为了谋取私利而进行非法的、违法的、走捷径等不当行为，公权力的监视和监督还有处罚也不会正常运作。

在立法、司法、行政等公共部门，把公共权力寄生于经济力和资本的贪婪的精英主义，像惯例一样扎根于韩国社会。 前任或现任官员在民间部门再就业，通过买卖公权力来赚取数十亿资金，被当作是理所当然，问心无愧的。

所以现实情况是，普遍存在的有钱无罪的不良法律秩序盛行，对法律的社会信任度很低。 公共权力成为赚钱手段的这种腐败的公职社会风气、动用公权力的各种金融诈骗、房地产开发不正之风事件、财阀的私利取巧、操纵股价等，都充分说明韩国社会仍然停留在掠夺式资本主义中。

那么满足掠夺式贪欲的巨额的金钱和资源从何而来呢？正是从长时间的劳动，高强度的工作压力，冒着工伤灾害危险工作的大多数白领，蓝领劳动者的血，汗，眼泪中而来的。

<主持>
想更详细地听听关于"掠夺式资本主义"造成的不公正和不平等。 首先，您认为什么是公正的社会？现在的韩国社会公正吗？

<朱丙起>
如前所述，在现代民主主义国家，与公正和分配正义有关的社会的基本结构，可以说大体上体现三项基本原则。

第一，任何人都不应该受到不当的差别对待，而应该享有均等机会的机会平等原则。 正因如此，法律和制度的存在的理由是为了禁止性别、种族、宗教和出身所产生的歧视，确保所有国民都能接受基本教育和健康。

第二，根据贡献公平分配社会合作成果的公正的成果分配原则。 在市场经济中，成果分配首先发生在企业和所属组织中。 首先要判断市场产生的收入差距是否公正，否则，必须规范市场的不公正，或者通过政府的收入再分配职能来纠正。

第三，国民每个人必须从残酷的不幸中受到保护。确保每个人有平等享受安全的生活的权力的原则。 健康、就业、养老金和工伤保险等是基于这些原则的制度。基本生活保障制度也是如此。 把对公正和分配正义原则的社会总义通过法律和制度体现的社会才是公正的社会。

韩国社会是怎样的呢？ (韩国社会) 像一个倾斜的运动场，市场的收入差距非常大。 政府的收入再分配机能应对收入差距进行纠正，但是韩国政府的这一能力在发达国家中处于最低水平。 因福利和社会安全网也很松懈，在工作中受伤、失业、遇到灾难和事故等的不幸的国民得不到妥善保护。

社会阶层的流动也越来越困难，各阶层之间的经济机会不平等也成为一个大问题。性别间经济机会不平等更是严重。 女性在经济活动中遭受的"实质性"歧视在OECD成员国中处于最差水平。这是一个需要感到羞愧的事情。

与其他发达国家相比较，现在的实情是，在现代民主主义社会对公正的三项基本原则中，韩国社会没有一项是做到位的。 从量上可以说已经进入了发达国家，但在质上仍停留在落后国。 外表虽然是发达国家，但内在却是落后国。只有内在变成发达国家发展才能持续发展下去。

<主持>
对现今韩国社会的不平等和两极化您似乎还有其他意见，到底是多大的问题呢？

<朱丙起>
首先，要判断问题有多大，必须制定标准。 如果标准是世界平均水平，可能没有什么问题。因为大部分国家还是落后国家和发展中国家。 有很多人用这种标准来说韩国社会的不平等和两极化没有问题。

也不能说有错。但这是一个空洞的话题。 我所衡量的标准是发达国家的标准。特别是比韩国生活得更好的发达国家。 想发展必须要这样。如果这样设定标准，就有非常严重的问题。

韩国社会自１９９０年代中期以来，收入分配与经济增长一样迅速恶化。 我们利用世界收入数据库的资料来了解一下上位10%的高收入阶层的税前个人收入在总收入中所占比重的变化。 如图所示，1990年为34%，2019年，这一比例上升到46%。可以看出，不平等程度的变化在主要发达国家中最快。

根据可支配收入不平等度为标准，1990年代中期韩国是低于OECD成员国平均水平的平等的社会。然而，2017年创下世界第六高的基尼系数0.355，成为了一个非常不平等的社会。

现在看到的这幅图是把这种收入不平等度的变化，用可支配家庭收入的基尼系数和百分比（P90/P10）两个指标来表示的。 图表里箭头的长度表示收入不平等的变化速度。可以看出与其他OECD成员国相比，韩国的变化最快。

表示收入差距的各种指标也非常高。 中收入与最低10%收入之间的比率在OECD成员国中最高。贫困率是指收入水平低于贫困线——中位收入50%的人口比例。

韩国的贫困率为17.4%，在OECD成员国中排名第三。 特别是老年人的贫困率为43.8%，在OECD成员国中排名最高。 也可以看出工资差距在过去20多年中一直很严重。 低收入，即低于中位收入2/3的劳动者比率和上位收入（P90）以及低位收入(P10）的百分比，两者都是OECD成员国中排名前列的。

像这样收入分配迅速恶化的原因是，随着经济增长和老龄化的推进，市场收入的不平等程度高了，但在市场秩序的先进化、政府的收入再分配职能、福利扩充等方面没有发生大变化，或者进展缓慢。

政府的收入再分配机能可以用市场收入不平等度和可支配收入不平等度之间的差值来衡量，而您所看到的图片中垂直轴表示了这一点。 从这幅图中可以看出，韩国在OECD成员国中是最低的。

图中的箭头显示了各国基于政府收入再分配机能的家庭收入不平等度的变化。 这显示出市场收入不平等度和可支配收入不平等度之间的差异。 北欧发达国家的长箭头表明，政府在降低不平等方面的作用有多大，而韩国的短箭头则恰恰相反，表明政府的作用很小。

<主持>
似乎很多人认为对女性的歧视有所改善。 也有很多人认为反而男性处于不利地位。请您对性别间机会不平等再详细说明一下。

<朱丙起>
韩国劳动力市场上女性歧视问题不是一天两天的事情。 以公共部门为中心的招聘过程中这种歧视已经减少了很多。 但在占就业的大部分的私营部门，问题仍需要解决。 现在当然不能公开歧视。因此，形式上的歧视可能已经减少，但在聘用和晋升方面实质性的歧视仍然存在。

许多指标客观地说明了这一现实。 即使在公共部门，女性在高职位中占据的比例也比其他发达国家低很多，更别提民间部门了。

2019年我在韩国经济论坛上发表的论文中，就有性别间机会不平等指数值（即使有能力，因为是女性的缘故也不能成功的概率）的测定结果。 根据劳动所得和计时收入为基准测定的结果分别为66%和50%。女性即使能力突出，半数以上也都会感到迷茫。

自2000年代初以来这种趋势一直持续到现在。 一般来说，阶层间的机会不平等在很大程度上是通过专科以上学历来弥补了，但性别间机会不平等并非如此。

即使通过专门大学以上学历的人来制定限制，性别间机会不平等也是不会有太大变化的，仍然很高。

也就是说高等教育对克服性别间机会不平等没有多大帮助。

除非根除就业方面的男女差别，如因生育和婚姻而职业中断问题等在劳动力市场上遭受的差别，否则很难减少性别间机会不平等。 包括OECD在内的许多国际组织一直警告说，女性遭受的实际歧视非常明显。

然而，认为没有程序和形式上的歧视就没有问题的愚蠢和不成熟的态度，在韩国社会似乎普遍存在。特别是围绕能力主义的男性和女性间的社会分歧，这种态度尤为明显。好像也有煽动这种矛盾的人。真是可悲啊。

<主持>
认同根据能力获得社会经济地位是公正的能力主义似乎是理所当然的。您认为问题是什么呢？

<朱丙起>
能力主义是指，要制定能力筛选程序，通过公平的审查过程，根据能力决定是否就业、是否升职、报酬多少等。 从（定义）本身来看，非常简单明了，理所当然。 然而，稍加想想，就很容易发现，这个标准很难为上述公正社会的三项基本原则中的任何一个提供对策。

如何判别能力？根据能力差异，奖励多少，差距怎么定夺？如果从一开始就有难以获得能力的人怎么办？竞争的落伍者，失败的人怎么安置？ 这每一个问题都是通过能力主义无法解决的分配正义的基本问题。

然而，令人惊讶的是，许多人认为能力主义是把不公正的韩国社会变得公正的对策。 政治、社会领袖、媒体和学者似乎在助长这种氛围，令人叹为观止。

能力主义之所以看似合理，是因为程序上的公正性。 没有人会反对最低限度的程序公正性。 但这并不能保证实质性的公正性。 更大的问题是，不完善的能力主义成为了不公正的温床。

没有一种制度能像资本主义那样通过能力主义运作。 这是因为在市场中，个人和企业以生产性判定能力，从中获得收入和收益。 就业和晋升也是如此。

这种资本主义带来的不公正的社会代价在历史上经历了无数次，展现了能力主义的局限性。 在强者支配弱者的胜者独食的不公正市场中，能力主义造成了一个容忍弱肉强食丛林的危险社会。

一个没有公正分配原则、只有强者才能享有安全生活权的社会，对大多数人来说只能成为危险的社会。 无数的经济学家、政治哲学家和思想家都在思考这个问题的同时发展了正义论、道德哲学和经济学。

由于落后的资本主义社会的这种单纯的能力主义，出现了极度不平等和两极分化、歧视和机会不平等的群魔乱舞的社会。 19世纪和20世纪初，欧洲和北美的资本主义社会就是如此。而现在，落后国家社会也是如此。

极端不平等和贫困的持续会进一步将歧视群体和既得权集团分开。 在阶层化社会中，能力不仅通过个人努力，还可以通过所属集团的物质和非物质资源而得到。 在受歧视的群体中，培养能力的机会受到限制，在能力主义社会中，摆脱这种歧视的自由也会被剥夺。 能力主义反而会强化这种结构性歧视和机会不平等。

美国长期实行的平权法案(affirmative action)是为了消除能力主义无法解决的对少数群体、移者民和女性的结构性歧视而导入的政策。不仅是美国，大多数发达国家也为这些社会弱势群体和少数人采取了优惠措施。就是为了保障公正的第一项基本原则，即机会平等原则。 它不是为了形式上的机会平等，而是为了实质性机会平等。

韩国社会现在面临着严重的两极分化问题。部门间、企业规模间和就业形式间的收入和生活质量差距太大。 这也是韩国社会以能力主义的安稳姿态管理劳动市场而造成的问题。

作为解决方案，政府于2018年也选择了将公共机构的非正式职转换为正式职的强制手段。 然而，在推行这些政策的过程中，出现了很多社会冲突。这是因为善意的受害者。

可以批评政府没有制定出防止利益冲突的细致的推进方案。 但是它是相反于能力主义的，所以说它错了，不能成为恰当的批判。 能力主义创造的不公正社会不可能通过能力主义得到解决。 减少非正式职如果没有民间部门的自愿努力是难以解决的，单靠政府政策是有限度的。

因此，为了消除非正式职和正式职之间的差距，我认为必须从根本上努力。 工资差距、工作环境差距、社会安全网差距应得到缩小，从而建立一个使非正式职也能像正式职一样安心工作的社会。

我认为没有什么比通过成熟的民主主义和福利国家来建设公正的社会更紧迫和重要的课题了。 扩大福利和社会安全网，实现机会平等和分配正义，成为人人都能安心生活的社会。 只有这样，大多数国民才能大胆挑战革新，这才是持续经济发展的方法和成为技术领先国的道路。

<主持>

扩充福利和社会安全网实现机会平等和分配正义，让所有人都能安心生活的社会，这是韩国社会目前需要的公正。我是这么理解的。 还有对能力主义的结构性公正不仅保证不了实质性公正而且也是不公正的温床这句话印象特别深刻。

接下来的课里，我们听听教授对于把不公正的韩国社会变得公正有何对策。

2-3 建立公正的社会 ①：强化教育的阶层阶梯功能

上堂课，听了关于现在韩国社会的不公正的实态。 教授详细地为我们讲述了企业生态环境的不公正、性别歧视、收入差距，以及能力主义造成的社会不平等和两极分化的情况，并且详细说明了为什么这些阻碍了革新。

接下来的时间，我们将听听教授为我们介绍为了实现革新，应采取哪些具体对策来确保韩国社会的公正性。

<主持>
关于韩国社会需要的公正性，教授首先提出的建议是强化教育的阶层阶梯功能，强调教育的重要理由是什么呢？

<朱丙起>
过去，韩国经济之所以能够实现高速增长，很重要的原因就是不断提供了优秀的人力资本。 那时候教育在阶层间的壁垒不像现在这么高，公共教育的迅速普及使每个国民都能梦想通过教育提升阶层。再加上迅速的经济增长又加大了好的工作岗位的供给。

因此，帮助国民们实现了梦想。在此过程中，技术和能力也得到了共同成长。 不仅是韩国，日本和台湾也是如此。 相反，菲律宾或中南美洲的一些国家则失败了。 人们认为这些国家之所以失败，是因为他们未能通过教育持续积累人力资本，从而陷入了所谓的中等收入陷阱。

韩国过去的经济之所以能以人力资本为基础得以良好运作，一方面，是因为教育作为一个阶层阶梯运作良好的原因。 教育和人力资本的积累推进了快速的经济增长，快速的经济增长创造出良好的就业机会又再次促进了教育和人力资本的积累，从而形成一种良性循环。

因此，虽然市场上普遍存在劳动剥削现象，政府也以牺牲福利为代价只强调增长，但教育和人力资本的积累得以持续，因此出现了可以持续增长的奇迹。

我认为教育与人力资本积累的重要性对未来的意义更大。这是因为经济发展已经到了高度发展阶段，而正在发生的第四次工业革命和向数字化等技术转型更需要注重人的能力。

<主持>
过去教育在阶层阶梯功能上做得不错，现在不是这样吗？

<朱丙起>
过去被认为是阶层阶梯的教育现在正成为维持阶层的手段。 近来，可以利用韩国就业信息院的资料获取韩国学生进入全国最好的前5所大学和包括医药学专业的名牌大学的概率。 从中可以了解到，家庭环境恶劣的学生不管天生能力有多突出，多么努力，10名中有7名会在进入名牌大学时失败。

很多研究都表明教育成就与家庭的社会经济地位之间存在高度的相互关系。 一项研究（金永哲）显示，学生的出身背景对成绩有50%以上直接或间接的影响。

利用前面所说的机会不平等度可以知道，家庭社会经济地位差的学生无法获得最高高考成绩的可能性非常高。2005年和2011年的大学高考资料显示，这种情况在外语即英语领域占70%，在语言即国语领域占50%。

教育机会不平等程度如此之高，是因为根据家庭的社会经济地位，私教育费支出额与学生们的自主学习时间的绝对差异很大。 因为家庭环境好的学生私教费支出越多，自主学习的时间也越长。 如果只针对自主学习时间最长的学生们，那么机会不平等度就会明显下降。

也就是说，在困难的环境中长大，很难上一所好大学。 换句话说，在富裕的环境下长大，更有利于上好大学。 根据2020年韩国奖学金财团的资料，被称为SKY的三大名牌大学的新生中，家庭收入在前20%的学生占55%。

<主持>
能进入SKY的新生中有一半属于收入前20%的家庭，这一点确实很令人惊讶。 虽然知道鸦窝里出凤凰是很难的时代，但没想到是这种程度。

我知道在其他发达国家，父母的学历、职业和收入水平对子女教育的影响也很大。 需要更加关注教育机会不平等有什么特别的理由吗？

<朱丙起>
对，阶层间教育机会不平等在其他发达国家也很高。 问题是与其他发达国家不同，在韩国，这种教育的机会不平等会直接导致经济机会不平等。

国家统计局的社会调查表明了经济机会不平等的严重性。 在2000年代初，只有10%的人对子女的社会经济地位上升的可能性持悲观态度，然而，自2015年以来，这一比例迅速上升至50%以上。

通过实际收入数据，也能确认到这些变化。 阶层间经济机会不平等可以通过阶层移动性指标来确定。前面提到的机会不平等指标也是其中之一。

我曾在2021年与我的研究生一起，利用韩国劳动面板数据（KLIPS）和家庭动向调查数据（HIES）研究过经济机会不平等的长期趋势。 研究结果显示，伴随出身家庭的社会经济地位的机会不平等明显存在，自1990年代以来一直呈持续上升趋势。

图中所看到的红色实线是自1990年以来家庭收入的阶层转换机会不平等指数的走势。 如前所述，阶层转换机会不平等指数是指，即使有足够的能力和努力，由于恶劣的社会经济背景，也不可能成功的概率。 阶层转换机会不平等度在1997年外汇危机前的四年中平均值为17.96%。 从2013年到2016年的四年间的平均值为39.52%，约升高了两倍。

图中的两条虚线表示的是将分析对象限制在高中或专科大学以上学历的情况下，机会不平等度的走势。 高中以上学历是图中上边灰色虚线，可以看出机会不平等度没有显著变化。

专科大学以上学历是下边的黄色虚线，可以发现，机会不平等度最多可以缩小50%以上。 这表明，通过高等教育，可以很大程度上克服机会不平等的可能性。 这说明消除教育差距有助于缓解经济机会不平等。

最终，如果社会阶层之间的大学教育机会不平等，家庭条件困难的孩子将不能很好地接受公共教育，提前放弃了接受教育。 集中在家庭条件好的孩子身上的高等教育，会错过多数条件差的家庭的人才的潜在力。

像爱因斯坦、爱迪生、比尔·盖茨和史蒂夫·乔布斯这样的创新者并不仅仅存在于富人家。 如果不能从各阶层中均匀地发掘引领未来韩国的革新型领导人，最终是全体国民的损失。 包括大学在内的所有教育机构都未能充分发挥他们的作用。

在新冠肺炎和气候危机中，世界面临着能源和数字技术的大转变。 世界将迎接一个比过去人力资本的重要性更大的时代。 应尽快恢复教育的阶层阶梯功能，建立一个能保障所有青少年平等接受教育机会的社会。

最重要的是，必须确保不同社会阶层和不同地区的学生都能接受良好的大学教育。 名校应该带头做出这些努力。应发掘具有潜力的不同背景的学生，为他们提供通过大学教育实现潜力的机会。 这才是一条提高社会贡献度、促进大学、社会和经济共同发展的道路。

<主持>
我非常赞同教授的话，为了恢复教育的阶层阶梯功能，我们似乎必须要改革现行的教育制度。

<朱丙起>
像现行的保送录取一样，单靠对高中进行差别化评价或利用高考成绩排名是很难的。

到目前为止，可以说政府对大学入学考试的控制主要是通过保送和高考等选拔过程为中心实现的。我认为比起这个我们可以评估选拔结果，减少教育机会不平等，可以找到恢复阶层阶梯功能的更好的改善方案。

应该避免出现这种像现在这样在韩国的名校里学习的学生主要来自于高收入阶层的结果。法学院和医学系也是如此。 对学生的阶层和地区多样性进行评估，增加对学生多样性高的大学的财政支援，或作为对大学财政支援和研究支援的资格条件增加阶层多样性和地区多样性基准等方式。

这样一来，选拔过程就可以交给大学自己了。 包括机会均衡选拔、区域均衡选拔或开发出同时考虑到学生成绩和社会经济背景的新的入学考试等，大学将为了强化入学学生的多样性而自愿努力。

如果不采取这样的特别措施，仅调整高考和保送比率，很难解决当前高考中出现的阶层间教育机会不平等问题。 美国、英国等发达国家也导入了不仅考虑高考和内申成绩(申报的在校平时成绩)，还考虑到学生的社会经济背景的选拔制度。韩国大学也有必要改变高等教育政策。

<主持>
谢谢教授，这堂课我们知道了为了培养革新所需的人才，我们需要重新恢复教育的阶层阶梯功能。

下堂课要接着讲的内容是，除了教育阶梯，创建就业和创业的阶层阶梯功能。

2-4 建立公正的社会 ②：创建就业，创业的阶层阶梯

上堂课，我们讨论了为了培养革新人才要恢复教育的阶层阶梯功能。 为了短期内恢复阶层阶梯功能，要建立一个保障所有青少年教育机会平等的社会，不同社会阶层和不同地区的学生都能接受良好的大学教育的社会。

这堂课接着上堂课，有请朱丙起教授为我们带来建立公正社会的第二条，关于就业、创业的阶层阶梯。

<主持>
教授，您好。上堂课您为我们讲述了为了培养人才，应恢复教育的阶层阶梯功能，这节课，请您谈谈对就业和创业的阶层阶梯的看法。

<朱丙起>
不仅要通过大学入学，还要通过就业、创业和企业活动创造足够的成功阶梯。 现在是一个即使没有大学毕业，没有进入名牌大学学习，即使只是一个普通的兼职生也能成功成为名人的时代。 企业也有必要摆脱传统的通过学历选拔有能力的人才的招聘方式。

以公营企业和公共部门为中心，增加高中毕业人才的招聘，扩大本地人才的招聘，也是消除就业中阶层和地区间机会不平等、打造就业成功阶梯的好方法。 如果成功，首都圈集中现象也将得以消除。

还必须缩小劳动力市场的差距。应该使在韩国社会中从事社会所需的任何职业的人，都不仅能过上人性的生活，还能享受到幸福的生活才行。 目前为止仍有许多人没有假期，每周工作50小时、60小时，收入却只是接近最低生活标准。

冒着事故的危险工作的情况也很多。国家虽然成为了发达国家，但国民生活仍停留在落后国家。与其他发达国家相比，正式职-非正式职，大型企业-中小企业，制造业-服务业，男女间的劳动收入差距太大。

在韩国经济中，也开始出现成功的IT公司。 然而，在出口主力产业中，成功的企业增长的例子仍然很少。 企业生态环境仍然是以极少数财阀大企业为顶峰，由少数中坚企业，以及中小型企业和大部分小企业组成。 这是因为经过创业和中小企业阶段后，这些企业成长为中坚企业和大企业的道路被堵住了。

<主持>
经过创业和中小企业阶段，成长为中坚企业和大企业的道路被堵住了，这句话似乎意味着企业成长的成功阶梯没能发挥作用。 教授认为其原因在哪里呢？

<朱丙起>
企业成长的成功阶梯无法发挥作用的原因是财阀和大企业集团挡住了去路。 财阀的经济实力过于集中仍是一个严重的问题。财阀和大企业滥用优势地位，与之合作的中小企业的业绩得不到适当的补偿。

此外，财阀大企业集团的内部交易、一刀切等大企业的利润被总裁一家转移的不良经营行为，裙带主义惯例，公共权力腐败等，阻碍了稳健的中小企业的成长。 在一个钱和权力的人脉比生产力和革新更受重视的经济中，不能指望创新者的创业和成长是理所当然的。

最终，中小企业的增长被堵住的经济环境下的最大受害者是多数国民、无力的平民和劳动者。 如果负责80%以上就业的中小企业变得困难，好的就业岗位就会减少，就业岗位的质量必然会下降。在不公正的市场经济环境中，如果强者垄断了经济支柱，多数弱者的生活必然会挫败。

<主持>
明白了。与这个问题相关，请您再谈谈最近您常说的ESG经营。

<朱丙起>
近年来，环境、社会和支配构造的首字母组成的ESG经营备受关注。 以主要发达国家为中心，在美国和欧洲，很久以来企业的社会责任一直被重视。 社会责任不仅涉及道德问题，还可能通过企业供应链中的风险管理和企业社会声誉等，影响企业的可持续性。

由于气候危机和国际社会合作产生的全球治理，对碳排放的责任已开始被视为不仅是长期危机管理的问题，而且是涉及眼下招商引资和创收的紧迫问题。 国际社会要求企业们不仅要对直接的碳排放负责，就连供应链所产生的间接的碳排放也要负责。 因此，全球供应链管理也成为企业的重要问题。

由气候危机和能源转型引发的强调ESG的资本主义将给企业经营带来巨大变化。谷歌、苹果等全球企业争先恐后地宣布，到2050年为止，其供应链将只使用100%的可再生能源的'RE100'宣言。 韩国全球大企业也加入了进来。

<主持>
那么您觉得像您所说的ESG经营这一世界潮流会对韩国资本主义产生什么样的影响呢？

<朱丙起>
我认为现在是世界史性的转换期。特别是应对气候危机的能源转换和向碳中立社会转型所需要的全球经济和贸易秩序发生巨大的转换。 虽然对韩国来说是一个巨大的挑战，但如果克服得当，同时也有可能成为韩国经济再次飞跃的机会。

特别强调ESG的发展趋势是因为我认为这会成为推动韩国资本主义先进化的好机会。 韩国资本主义通过ESG成果进行发展的潜力巨大。 正如我刚才所说，我们可以通过ESG的成果来纠正韩国不公正的市场秩序。

并且，迄今为止被忽视的很多重要课题，如与合作企业的共赢、就业福利和能力建设以及创新成果和合理支配构造的扩散等，也有望通过ESG的成果在这些方面延续出很多成果。 这些都会产生提高经济增长潜力的新的增长动力。

将特权和投资集中在少数大企业上而发展的时代已经过去了。 不仅是单个企业的能力，供应链和企业合作网络和社会革新能力，在现在这个时代这些才是重要的。

对企业ESG成果的关注，有必要扩散到消费者和市民社会中去。 只有具备这种成熟的国民意识，才能形成严肃看待不公正交易和不正当谋取私利等掠夺式行为的社会氛围。

韩国经济从量的指标来看已进入了发达国家阶段。然而，公共监督机构、权力机关和官僚社会仍然停留在权威主义时代。不合适的衣服该换掉了。

应杜绝对贪污、渎职、假账等严重企业犯罪进行不痛不痒的处罚的做法。 为确保实行与经济规模和发展阶段相适应的严格监督和严厉惩罚，需要对权力机构和官僚社会进行根本性改革。

美国经济在过去的100年里，持续了2%的稳步增长。革新的创业，新龙头企业的进入和成长的动态企业生态环境是这种持续增长的基石。 之所以能够建立这样健康的企业生态环境是因为对反垄断和公正交易进行严格的公共监督和司法处罚的缘故。

只有严格监督不让具有市场支配力的强者制造进入壁垒，阻碍革新，才能为创业、新经营者和中小企业开辟成长之路。 应该建立一个经济弱者通过提高能力、就业、创业和革新实现增长的成功阶梯。

<主持>
谢谢教授，这堂课我们听到了关于创建就业和创业的阶层阶梯，还有由气候危机和能源转型所引发的ESG经营。 从总结本次讲座的角度请您谈一谈，为了消除教授所说的韩国社会的多层面的不平等和可持续的经济发展，我们需要什么。

<朱丙起>
正如我前面所说，韩国经济之所以能够迅速发展，是因为高度的教育热和高度的人力资本积累。

通过教育的阶层上升机会变得广泛，而且有重视教育的文化资产存在。 然而，高度的不平等和两极分化，阶层间的机会不平等正在严重破坏这种增长动力。

进入发达国家阶段的韩国经济现在需要质的成熟。 随着成熟资本主义的发展，我们必须成功地为第四次工业革命、数字化转型和能源转型等世界历史转型做好准备。

为了持续的经济发展，重新成为革新的先进国家，最重要的就是有创新和革新思维的人力资源。 是时候消除韩国经济的不公正、不平等和两极分化，向提高全体人民生活质量、投资于人、教育和提高人的能力的经济社会结构转换了。

<主持>
为了消除不平等和社会两级分化，投资于人，强化教育和人的能力有哪些具体的方案呢？

<朱丙起>
首先，政府的收入再分配机能必须摆脱在OECD中的落后状态，至少要强化到中等水平。 由不公正的市场秩序所导致的收入差距和因两极化导致的恶劣的国民生活质量应通过社会福利和安全网来提升。

目前社会福利支出的低比例也应提高到OECD成员国的平均水平。改善福利制度，将福利盲点降到最少化。 特别是随着雇佣关系的急剧变化保险的盲点在扩大。这个问题亟待解决。

劳动力市场的二元结构和两极分化问题必须从根本上建立公正的市场秩序才能解决。 需要严格监督财阀和大企业的不当的寻租行为，改革法律和制度，加大处罚力度。

中小企业必须能够公正地获得成果补偿，才能对所雇用的大多数劳动者给予适当的报酬，并消除收入差距和两极分化。 必须要持续进行使管理公正市场的金融，公平交易，劳动等监督体系和监督机构正常运转的制度改革。

必须要建立事前抑制不公正行为的有实效性的处罚制度。 要加强监督机构的权限、人力、专业性等。官僚社会的道德败坏和腐败行为应尽快清除。

确保包容性教育投资和高度的创新人力资本的积累是韩国经济能够持续发展和向先导型经济转型的重大课题。 需要消除教育，医疗，福利等提高个人能力和生活质量的基础材料供应的地区间差距。

扩充婴幼儿保育和儿童早期教育设施，提高服务质量，这与改善机会平等、解决低生育率问题、提高女性经济活动参与率以及人力资本等主要政策目标密切相关。 想要最大限度地发挥早期干预的好处，必须加强公共部门在这方面的作用。 与其他发达国家一样，要扩充如儿童津贴的现金补助，并提高服务支援的质量。

中等教育和高考制度方面，也需要消除各阶层和地区之间的教育差距，在机会平等和青少年生活质量方面需要相当大的改善。 为此，我认为在中小学阶段，应尽量减少消耗型的高中入学竞争，使其最小化。 在高考中，也迫切需要制定提高机会平等性的方案。

大学有进行本科教育和引领韩国经济革新的研究中心这两个重要的作用。 应避免排名靠前的大学集中选拔富裕阶层子女的模式。

优秀人才在贫困阶层中也存在，但这些人必然被排除在外。 我认为，为了扩大大学本科生在阶层间、地区间的多样性，应引入对此进行评价和支援的财政奖励措施。

此外，以公共部门和公营企业为中心扩大本地人才录用，培育本地重点大学也能起到改善高等教育的机会平等的作用。 各地方大学作为技术革新的据点,可以为地区经济做出贡献。如此一来，大学在首都圈集中的问题也能得到解决。

应该实现公正的市场和分配正义，实现有包容性的国家发展，从革新、持续的经济发展的角度上讲，这些也是必需的。这就是本次讲座的结论。

为了实现分配正义需要扩充福利和社会安全网，以及政府强有力的收入再分配机能。 在包容性的国家里对人的投资，可以扩大人力资本的量和质的供应，而人力资本的量和质的扩大是韩国经济的根基。 公正的市场将使革新型中小企业与大企业共生合作的先进企业生态环境得以形成。

<主持>
向包容性国家发展，在这种国家所进行的对人的投资，将确保公正，并最终带来可以促进经济持续增长的革新。可以这样总结吗？

教授为我们带来了各种宝贵的话题，谢谢您，您辛苦了。

<朱丙起>
谢谢大家。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10분

어떤 경제주체도 다른 경제주체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고, 모든 경제주체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거래의 총이익을 자신의 기여분만큼 나눠 갖는 시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공정한 시장

해설 공정한 시장은 혁신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성장에 기여한다. 불공정한 독과점 시장에서는 독과점 기업의 횡포로 다른 경제주체의 혁신이 차단된다.

02 5분

다음 중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능력주의 원칙
② 기회 평등의 원칙
③ 공정한 성과 배분의 원칙
④ 평등한 권리의 원칙

정답 ①

해설 능력주의는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을 넘어선 실질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나아가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시장을 옹호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03 5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현대 한국 사회에 필요한 개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①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회복
②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
③ 높은 생산성과 시장 지배력을 갖춘 대기업에 대한 보호
④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에 대한 강조

정답 ③

해설 현재 한국의 기업 생태계에서는 재벌과 대기업 집단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 행태를 제한하여 혁신적 창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성장의 성공 사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

04 5분 다음 중 현대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① 높은 교육열
② 장시간 근로
③ 낮은 산업안전도
④ 국민소득에 비해 낮은 가계소득

정답 ①

해설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본 축적은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성공한 한국, 대만, 일본의 성장 원동력으로 지목되어 왔다.

05 5분

다음 중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심각도를 보여주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① 부유층으로의 소득 집중도 증가
② 정부의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
③ 개천용지수의 장기적 상승
④ 계층 간 교육비 투자 수준의 격차

정답 ②

해설 시장소득 불평등도와 가처분소득 불평등도의 차이로 확인한 한국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등 조세와 재정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고서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고서

- 다음의 주제를 확인하여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한글 혹은 워드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글자크기 11pt, A4 3장 이상)

주제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능력주의'를 한국 사회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존재한다. 능력주의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거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120분)

참고

한국 경제의 불공정성 문제는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실이 되었으며, 그 대책으로 사회 일각에서는 능력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강의에서 설명하듯이 능력주의가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실질적인 공정을 위한 사회적 원칙이 필요하며, 오히려 능력주의는 불공정을 조장한다는 반론 역시 유력하다. 능력주의를 둘러싼 찬반 주장의 논거를 조사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불공정 문제의 구체적 실상을 이해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수강생 본인의 입장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능력주의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아래의 자료를 읽어 보시오.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마이클 센델 저/ 함규진 역. 2020.와이즈베리)

기타

- 권력과 민간부문이 유착되어 벌어진 부패 사건으로 라임과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이 최근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두 기사를 읽어 보시오.

「대한민국 금융사기의 끝은 어디인가…옵티머스 사태의 전말」(『서울신문』 2020.07.2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4500173

「횡령·조작·은폐···'희대의 금융 스캔들' 라임사태 전말」(『중앙일보』2020.03.3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43821#home

-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관련하여 부모의 자산과 소득, 학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을 다루고 있는 아래의 기사를 읽어 보시오.

「환승 어려워진 '계층 순환버스'」(『경향신문』2019.09.30)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9300600025

- 지난 수년간 공정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였다. 한국 사회의 공정 논쟁과 관련하여 아래 기사를 읽어 보시오.

「'공정'이란 무엇인가」(『한겨레』2020.07.13)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53471.html

- 미국의 아웃도어 업체 '파타고니아'는 기업이 ESG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파타고니아의 ESG 경영 기법과 향후 방향과 관련하여 아래 기사를 읽어 보시오.

「ESG 모범생 파타고니아 "첫째도 환경, 둘째도 환경"」(『한스경제』2021.11.10)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266